

시편 3

101-119

시편 3 101~119

2019년 3월 17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시편 3

101-119

작성

| | |
|--------------------|----------------------|
| 시편 101:1~8 이창호 | 시편 113:1~9 정한조 |
| 시편 102:1~11 김현준 | 시편 114:1~8 김현준 |
| 시편 102:12~28 정한조 | 시편 115:1~18 정재규 |
| 시편 103:1~22 정한조 | 시편 116:1~19 정한조 |
| 시편 104:1~35 정한조 | 시편 117:1~2 정한조 |
| 시편 105:1~23 정한조 | 시편 118:1~29 정한조 |
| 시편 105:24~45 이광희 | 시편 119:1~16 정한조 |
| 시편 106:1~12 강요섭 | 시편 119:17~32 송호욱 |
| 시편 106:13~33 정한조 | 시편 119:33~48 유석정 |
| 시편 106:34~48 정한조 | 시편 119:49~64 정한조 |
| 시편 107:1~16 정한조 | 시편 119:65~80 정한조 |
| 시편 107:17~43 정한조 | 시편 119:81~96 정한조 |
| 시편 108:1~13 이동규 | 시편 119:97~112 정한조 |
| 시편 109:1~31 정인철 | 시편 119:113~128 김대인 |
| 시편 110:1~7 정한조 | 시편 119:129~144 김신년 |
| 시편 111:1~10 정한조 | 시편 119:145~160 정한조 |
| 시편 112:1~10 정한조 | 시편 119:161~176 정한조 |



1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시편 101:1~8

[다윗의 시]

1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4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표제 설명과 101편에 대한 개관

시편 10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이며, 내용상으로는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이전 다윗의 시들이,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원수에 대한 감정을 쏟아

내는 시들이거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 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다짐과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와는 달랐습니다. 초법적인 존재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를 통치 원리로 삼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시편 101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다윗의 다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의 다짐(1)

(1)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절에 노래하겠나이다로 번역된 “*שוּר*”와 찬양하리이다로 번역된 “*זָמַר*”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지속된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로,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정의는 주로 재판과 연관되는데, 하나님의 바르게 행하심을 뜻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고, 더디지만 모든 일을 바르게 이끌어가셔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입으로 늘 노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관심을 여기에만 쏟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 사필귀정(事必歸正), 파사현정(破邪顯正)_사악한 것을 파하고, 바름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인자와 정의를 자신의 통치 모범으로 삼겠다고 천명합니다.

다윗이 삶의 길로 삼은 인자와 정의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삼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주며, 매사에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시갈)는 심사숙고하다,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뜻으

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길, 곧 흠이 없는 길을 걷기 위해, 흠이 없는 통치를 위해 심사숙고하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또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할 것도 다짐합니다. “내 집안”이라고 표상된 사적 공간에서도 초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사이에, 다윗의 기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기도하며 연습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나타낸 탁월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3~5)

이어서 다윗은 그 스스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를 두고 다짐합니다.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비천한 것”을 눈 앞에 두지 않으며,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합니다(3).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알”이 사람을 가리킬 때는, 부정적인 인간 군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신이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고 할 때 사용했고,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며,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이를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3절을 그 눈으로 보면,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이 같은 무리를 가리키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행동이 천박하고, 방탕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비천한, 허랑방탕한 무리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방탕할 수 없고, 거짓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둘을 함께 묶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눈속임에 능한 간신과 모리배들을 멀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마음에서 떠나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4). 4절 말미에 “알지 아니하리로다”에서,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곧 “동참하지 않겠다”, “가담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그 스스로를 절제하겠다는 표현입니다.

(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 곁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다른 이의 인격과 명예에 손상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과신 때문에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망뜨리게 합니다.

나는 주변에 어떤 이들과 어울립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로 수렴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식의 자기합리화에서 벗어나 때로 구별되는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좋은 이웃이, 좋은 친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 중상모략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를 멀리하며,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모든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살전5:22) 굳은 결기가 필요합니다.

함께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6~8)

다윗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 다윗처럼 완전한 길,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곧 충성된 자인데, 성경의 표현을 직역하면,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 속임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쳐내고 나서 그 나라를 혼자서 이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그 나라를 위해 흠잡을 데 없는 인생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연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걸어갈 때에야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귀로 듣고, 들은 대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딤후 2:15) 우리의 삶을 드러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일주일간의 고된 삶을 뒤로 하고, 쉬는 것도 좋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는 시편 101편의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꿈을 꾸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 꿈이 세상과 부딪혀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령임을 깨닫고, 그 거룩한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얼마나 주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친 숨결을 가다듬고, 말씀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정결한 삶을 갈망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삶을 추동해가는 힘을 공급해주시며,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인자”와 “정의”를 나의 말로 재정의해보세요. (1)

2.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2)

3. 다윗은 가까이 할 사람과 눈 앞에 두지 않을 사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기준을 시편을 다시 읽으며 나뉘본 다음에, 내가 사람을 가까이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4. 다윗은 왕인 자신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2

객관화의 과정

시편 102:1~11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솥 같이 뒹음이니이다 4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들어주소서(1~2)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고난 당한 자, 즉 곤경

에 몰린 사람이 자기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문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용한 일곱 가지 참회시 중 하나로 쓰였다고 합니다.

(1~2)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거푸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2개의 짧은 절 안에 기자의 간절한 청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집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흠어 버리고, 진리를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애원하는 과부의 목소리에는 응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는 사람,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비참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을

떠난 일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과 원수의 비방(3~9)

(3~5)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솥 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뼈가 솥 같이 타고,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며 외면치 말아 달라 간구하는 이유 중 첫 번째입니다. 고통이 어찌나 심한지 뼈가 솥 같이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조차 힘들어 곡기를 끊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 마르다 못해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본인의 처참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 간혀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조류의 목록이 나오는데 17절에 올빼미와 부엉이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올빼미와 부엉이와 같이 기자를 여기고 있습니다. 부정하기에 가까이 하기 싫고 꺼림칙한 존재입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새입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떠올려 봅시다.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7절에서도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같다 표현합니다. 참새는 항상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조류인데 지붕위에 참새 한 마리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면당하고 동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 절에서 병중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했다면 뒷절에서는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9)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부정한 자인지라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로이 투병하는 기자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신이 약해진 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결정타를 줌으로써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노로 말미암아 의미 없어진 인생(10~11)

(10)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병을 얻고 부정한 자이기에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원수들에게까지 조롱받는 것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을 동안에 지었을 것이라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여호와께 있음을, 주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할 보잘 것 없는 민족임을, 그렇기에 그 은혜와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죄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창을 쏘으셨습니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점점 날이 저무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풀의 시들어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기자는 망가지며 흐려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합니다. 뼈가 숲 같이 타고, 살이 뼈에 달라붙을 정도로 음식

을 잊어버리고,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외로운 참새처럼 되어버린 것은, 그토록 처참하고 비통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죄란 화살이 과녁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과녁에서 벗어나버린 나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 객관화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곤경은 무엇입니까. 밤잠을 설치도록 만들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게 만드는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아득함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지금 나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객관화를 통해 나 자신을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객관화를 통하여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본질이 되심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객관화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쉬이 흐트러지는 연기와 같고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의욕도 없고 생기도 없어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선명히 바라보는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어떤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2. 현재 나 자신의 삶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3. 시편 기자는 문제의 근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4. 나의 인생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5.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3

굽어보시며 살펴보셨으니

시편 102:12~28

12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만나이다 15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20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라 21 여호와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23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인의 회복을 기원(12~22)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표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다’는 단어는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인은 경제적으로 극심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작은 집에서 살고, 작은 자동차를 타고, 소유가 적어서 가난한, 즉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던 일이 갑자기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파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어서 집에 먹거리라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마음이 상하다’에는 ‘기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인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짓눌리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연기와 같고, 다 타버린 숯과 같고,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참새와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빵인지 재(灰)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물을 마시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나면, 그저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는 신세타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아주 크게 확대해 보니 조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과,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조국의 바빌론 포로 경험을 함께 노래하며 회복을 소망합니다.

(12)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11절에는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열 한절에서 ‘나(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기울어지는(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12~22절까지는 ‘나(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8번이나 나옵니다. 시인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시인의 시선이 자신으로 향할 때에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만 할 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말라 비틀어져 생명을 다하는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시고, 항상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인은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언덕)이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서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곧 온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온의 사람 중에 하나가 시인이므로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이유가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16)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주의 종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시온의 돌들’과 ‘그(시온)의 티끌’은 ‘허물어진 성전의 잔해’를 의미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의 잔해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향을 그리게 해 주는 물건이 있을 수 있듯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함께,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셨던 복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이상 범하지 않았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은혜와 복이 우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빌론 강가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17~18)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빈궁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발가벗겨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침서,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성경은 인생사용설명서와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그 설명서가 두껍듯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가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19~22)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소 높은 곳에서도 굽어보시고, 하늘에서도 땅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만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찬송가 563장 가사처럼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도 가능하시고, 복음서가 ‘주만 바라볼찌

라’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도 가능하십니다. 시인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피시는 것이 갇힌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함이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선포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탁함(23~28)

시인의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주었던 시선과는 사뭇 다릅니다.

(23~24)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도에’는 문자 그대로 ‘인생길을 가는 중에’입니다. 그리고 ‘쇠약하다’는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이고, ‘짧게 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배다’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중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신 것 같고, 추수 때에 벼가 베이는 것처럼 자신은 뿌리가 잘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기인 지금은 자신을 데려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참 솔직합니다.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니, 나를 언제 데려가시나 하나님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게는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중년에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 속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중년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40이 ‘불혹(不惑)_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40을 넘어 60이 되어도 ‘다혹(多惑)_미혹이 많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보다, 무분별하게 삶을 방치했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얹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견고한 삶은 없습니다.

(25~27)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과학의 설명으로는 우주의 나이가 137~8억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1초에 숫자를 하나씩 세면, 100만을 세는데도, 11일 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137억 년을 세려면 438년을 세어야 합니다. 임진왜란 12년 전

부터 지금까지 세어야 다 세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천지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몸과 삶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8)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종의 자손들’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종은 그 주인이 책임져 주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포제어처럼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고난당하고, 상할 대로 상해있는 조국을 기억하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 자신의 회복도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을 겪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시인처럼 조국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면 만사를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한한 사람이나 소멸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도, 죽은 것 같은 조국도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는 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웃으로, 주님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근심 속에 있음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울어지는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하 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먼 이방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시인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갖 상처가 많아도, 피를 많이 흘려 죽을 것 같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심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은 빈궁한 사람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곤궁하였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 한 때, 힘이 쇠약해지고, 삶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4

내 영혼아
송축하라

시편 103:1~22

[다윗의 시]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 여호와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

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개인의 송축(1~5)

시편 10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동과 환희로 노래하는 것과 자신에게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산전수전(山戰水戰)을 다 겪고 난 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1~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다’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다’이고, 하나님

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축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송축하라’를 세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지만, 새긴 바위까지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돌에 새겼다면이라도 새긴 돌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물에 새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면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송축합니다.

다윗에게는 잇을 수도 없고, 잇힐 수도 없는 죄악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들려준 이야기, 한 마을에 사는 양과 소를 심히 많이 가진 부자가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기르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것을 들려줄 때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깊이 참회하였습니다. 그 참회록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 인임을 통감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또한 ‘병(ἄ할루)’은 단순히 생긴 육체적, 정신적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를 지음에 대한 심판에서 오는 질병이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치다’는 ‘수선하다’, ‘치료하다’는 의미인데, ‘찢어진 곳을 꿰매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셨음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음’ 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량하다’는 ‘무르다’, ‘되찾다’는 의미로, 형제가 팔아버린 땅을

되사서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을 살려서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해서 주신 원리가 ‘인자’와 ‘궁휼’이라고 합니다.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파괴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고, ‘궁휼’은 ‘자궁’에서 온 말입니다. 여인이 잉태하면, 온 힘을 다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자궁 안은 태아가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양육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게임기와 같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간식거리들 등등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은 바른 믿음과 가치관, 책 등등입니다. 바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가 싫어할지라도 좋

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이러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은 독수리가 털갈이를 통해서 새로워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이 송축(6~18)

6~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6~9)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도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꺼내어 주시고, 홍해를 열어 건너게 하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생활 내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광란의 축제를 열기도 하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이 생각한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예 다시 애굽으로 돌

아가자고 작당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 인자하심 등의 이유로 인함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1)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과녁에서 벗어남’을 뜻하고,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뜻하는 말로, 두 단어는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과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의 도구로 삼아 왜곡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갚으셨다면, 우리 중 이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무조건 사랑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 높이만큼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는 얼마만큼입니까? 현재의 과학으로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끝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높은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12~18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의 인자하심을 증언합니다.

(12~13)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과(罪過)’는 ‘침범’, ‘반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왕조시대에 최고의 죄는 ‘역모’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지 않는 역모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간격만큼 우리 죄를 멀리 해 주셨습니다. 동서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구 한바퀴? 아닙니다. 우주의 끝입니다. 그렇게 멀리 해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14~18)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재질이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지을 때 사용하신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사가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원래 영어노래에서는 ‘땅의 먼지로, 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분의 숨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드셨네(From the dust of the earth, my God created man, His breath made man a living soul.)’입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만 아니라,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화병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1~2주일 후에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화단에 심겨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언덕 위 숲속에 지은 아파트는 좋은 집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바닥은 고대에는 모지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유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있던 자리도 모르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보다 더 수지맞는 인생이 없고,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늘이 송축(19~22)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하늘까지 확대됩니다.

(19~22)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에서까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노래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그만큼 많고 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의 후렴이 이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과거에 기도원에서 며칠을 보낼 때,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되새겨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우리의 죄를 멀리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영

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셀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성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성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심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심,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심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쭐거림은 들의 꽃과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송축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찾아와주셨듯이, 우리도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세요.
3.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인생이 먼지, 풀, 꽃과 같음을 아십니다. 최근에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유한한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5

주께서
다 지으셨으니

시편 104:1~35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3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11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12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13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14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운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6 여호와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17 새

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18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19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0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21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2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5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6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27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퍼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창조의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찬양(1~18)

시편 104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인 시편 103편의 시

작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였는데, 오늘 본문 104편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다만 뒤에 ‘할렐루야’가 더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죄를 멀리하여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행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송축과 찬양의 대상이자 이유, 목적입니다.

특히 시편 103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사역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조적으로도 창세기 1장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1~2a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송축과 첫째 날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1~2a)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인은 시편을 열며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며, 입으신 옷이 ‘존귀와 권위’라고 노래합니다. ‘심히 위대하시다’는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465광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사람과는 무한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야 하나님이시지, 같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옷을 입듯이, 빛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하여 빛이 있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2b~4절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심과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신 일을 찬양합니다.

(2b~4)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것을 휘장을 펼치듯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대기권)입니다. 그곳에는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대기권 밖, 천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의 일을 말하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펼치듯이 궁창(우주공간)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림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창조 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심과 바람을 타고 다니심, 바람을 전령으로 삼으심,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심은 구름과 바람과 불과 같은 자연현상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18절은 창조의 셋째 날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육지에 식물, 즉 풀과 채소,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6~9)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다와 골짜기와 산이 형성 될 때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의 정해진 자리로 모여, 바다는 바다가 되고, 산은 솟아올라 산이 되며,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력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매일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14~18)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땅 위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와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 식물 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곳에서는 초식동물들이 우기와 건기 때에 풀이 있는 곳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는 것이 들소들입니다. 들소들이 먼저 무성한 풀들을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얼룩말들이 지나가면서 남은 풀들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젤들이 지나가며 마지막 남은 풀을 먹습니다. 대이동을 하며 풀을 먹는 것만 봐도 참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자연 속에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높이 자라서 그 위에 새들이 깃들고, 높은 산 바위에 산양과 너구리들이 삽니다. 그런 짐승들이 절벽과 같은 바위를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시인이 풀과 식물이 자라는 땅과 나무 위, 바위로 가득한 험준한 곳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서 일곱째 날 찬양(19~35)

19~23절은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심과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고대에는 태음력, 곧 달이 뜨고지는 것으로 날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도 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20~23)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동물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육식
동물들보다 잠을 적게 잡니다. 그리고 토막잠을 잡니다. 경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
이 낮에 사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낮에는 잠을 잡니다.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냥
을 시작합니다. 시인도 사자들이 야행성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해가 돋으면 굴속에 놓고, 사람들은 주행성이라서 아침부터 저
녁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먹을 것을 잡으러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사자의 실제 사냥 성공률이 약 20%정
도 된다고 합니다. 사자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냥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자
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베푸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4)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5~26절은 창조의 다섯째 날과 관련하여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26)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가 ‘크고 넓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의미
입니다.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얼마의 생물이 사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
니다. ‘리워야단’은 바닷 속에 사는 미지의 생물을 가리키는 말
로, 인간을 괴롭히고, 바다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7~30절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지어진 지상의 생물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27~30)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생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아서 마지막 모래가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1~3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33~35)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인은 평생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라고 고백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하나님)는 그에 대한 나의 목상을 즐거워할 것이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목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규모가 거대하면서도 허황되지 않고,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린 시 중에서 백미(白眉)라 불립니다.

시인이 온 우주의 창조를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것은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대자연을 축소하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의 2절 가사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도 불가사의하게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삶으로 알려주는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으며,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지난 삶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다스림 받는 존재임을 언제 믿음으로 수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혹 아직 혹시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가만히 “자비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읊조려 기도해 보십시오.
2. 시인은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3.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고도 오묘하게 인도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 105:1~23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4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6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니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2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13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14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16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

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어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어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찬양(1~7)

시편 105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105편과 106편이 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데, 104편의 마지막에 있는 ‘할렐루야’를 105편으로 붙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5편과 106편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쌍을 이루는 103편과 104편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1~7).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절에 명령형 동사가 3개(감사하라, 이름을 불러라, 알게 하라)나 나옵니다. 4절까지 명령형 동사가 10개나 나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등인데 그 대상

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 속에서 솟구치는 감사를 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행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땅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역사하신 신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2절에도 명령형의 동사가 3개(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가 있습니다. ‘노래하다’는 ‘목소리로 흥얼거리다’는 뜻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는 ‘성가대가 연주에 맞추어 합창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시간에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예배의 찬양과 찬양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3~4)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랑하다’는 ‘빛나다’,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과 빛내는 것, 찬양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4절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용품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에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5~6)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5절과 6절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원문을 따라서 나누어보면, 5절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이고,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여”가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판단(재판)하심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총과 바른

판단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출애굽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찬양(8~15)

8~1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천 대까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라는 말씀도 있는데, 천 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가운데 하나인,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부터 시작하면, 그가 알에서 태어난 것이 A.D. 42년이라고 하니 족보가 70여 대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혁거세의 후손인 밀양 박씨도, 그가 B.C. 69년에 동해안 바닷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그 족보도 70여 대일 것입니다. 현재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족보는, B.C. 551년에 태어난, 공자의 족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의 기록으로 82대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자 때부터 지금까지는 약 2,500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약 4,000년입니다. 그렇게 해도 150대 정도 될 것입니다. 한 세대를 30

년이라고 하면 천 대는 30,000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천 대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9~10)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말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요셉의 하나님’은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이삭이나 야곱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붙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곧 이스라엘에게 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의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하나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갈라진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사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불평등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는 혜택만 있는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2~15)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갈 때에 그 숫자는 불과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3:15)”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를 묻을 매장지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나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 찬양(16~23)

16~23절은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6)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땅에 기근’은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 후에 있었던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은 이미 준비를 해 두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무방비상태였기 때문에, 인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갔었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하나님)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막아 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자연현상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근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이어’라며 감탄문으로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지워서 파견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 자신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종(노예)이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가게한 일의 주어는 요셉 자신도 아니었고, 그의 형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18~19)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마담 보디발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발에는 ‘차꼬’가 차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서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칼이 요셉에게는 목과 팔이 아니라 그의 발에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에 채우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몸’의 문자적인 뜻은 ‘혼’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이다’는 ‘들어가다, 나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혼(생명)이 철에 찔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

살을 맞은 물고기가 숨을 몰아쉬며 퍼덕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삶을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창 속을 걷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으며, 마르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출애굽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같을지라도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 분량만큼 단련되고 성숙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 언약의 은총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종살이를 한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옥살이까지 하며, 밭에는 차꼬를 차고, 그의 혼은 철에 찢려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는 것임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출애굽 대역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살이와 같고, 옥살이와 같이 여겨질 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님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련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또 다른 사람의 이웃으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은 무엇이었습니까?
2.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에 삶에도 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에 의해 단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어떻게 단련시켜 주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5:24~45

24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26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7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28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29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3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32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3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34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5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6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37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38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39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 반

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42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주셨고, 먼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갈과 화살을 들기 전에 나일강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려와 이집트와 전쟁을 했으며,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출애굽을 노래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시냇가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출애굽을 노래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노래를 시편이라 부르며 읽고 쓰고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성경에 두심으로 고통과 상실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영혼이 몸 누일 곳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24~25)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처음은 좋았을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마음은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을 받고 학대 받게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 받고 싶은 우리가 다수에게 이유 없이 미움 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유 없는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면, 누적되는 근심과 몸의 피로가 삶을 조금씩 멍들게 했을 것입니다.

(26~27)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온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에는 왕과 관료들의 눈치만 봤다면, 이제는 정부와 상반되는 명령을 내렸던 모세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분노한 이집트의 왕은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를 더

하게’ 합니다(출5:6~9¹).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원망합니다(출5:20~21²). 그런 시대였습니다.

(37~42)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과 금을 들고 기약 없는 사막생활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한 땅입니다. 낮엔 구름이 없으면 피부

- 1) (출5:6~9)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쭈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 2) (출5:20~21)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가 찢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밤에 불이 없으면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던 곳.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을 고기가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아니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던 곳.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40년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광야.

(43~44)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즐겁게 나와 노래했던 택한 백성은 결코 낭만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래 이후 가야했던 곳은 전보다 가혹한 상황과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칼을 들고 수많은 적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의 위협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현재에 의해 현재는 미래에 의해 해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고통은 시편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라야 꿈과 희망의 완전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시편을 부르던 백성들도 고통과 상실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던 예배의 일부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괴롭고 고독한 현실도

하나님의 손길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 완전한 사랑과 소망의 노래가 될 것임을 믿고 계속해서 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45)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노래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회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친구이자 선한 이웃입니다. 광야에서 노래하던 출애굽 백성처럼, 시편을 짓고 노래하던 이들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노래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스라엘과 시편을 짓던 시대도 그들에게 현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이들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에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재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두가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성경 인물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그저 행복했던 사람들'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2.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정리해 봅시다.
3.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로 가계 하신다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봅시다.
4.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노래로 만든다면 어떤 가사가 될지 적어봅시다.
5. 한 주간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돌아봅시다.

묵상한 날 :

8

주의 크신 인자

시편 106:1~12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다 2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
으로 나를 돌보사 5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6 우리가 우리
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 우리의 조상
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 그러나 여
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
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10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
도다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총 5권의 시편 중 4권의 마지막 시편이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105편이 족장 시대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의 시였다면 106편은 출애굽 이후 광야시대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1~2)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기분이 좋은 때와 상황에서만 인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인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정도로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시인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이 2절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간구(3~5)

3~5절에는 그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복됨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3~5)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정의’(히브리어로 ‘*미쉬파트*’)는 주의 ‘율법과 법도’를 의미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살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구원’,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 ‘주의 나라의 기쁨’, ‘주의 유산’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사’라는 표현들이 자신을 위한 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공동체에 대한 간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실은 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간구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회복을 구합니다.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6~12)

6절에는 자신들도 범죄한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였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6)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처럼 자신들도 범죄하였다는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죄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인류의 죄의 역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³⁾를 언급합니다.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8~12)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3) (출14:11~12)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이 크게 대비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신앙과 죄로 가득 찬 반면,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은 마치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홍해 앞에서 불신앙과 원망으로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6편을 함께 읽어나가며 우리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본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헤세드’ 곧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민족의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삶의 현장에서 시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심으로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며, 탐욕으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회복을 꿈꾸지만 회복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헤세드의 사랑, 성실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강도만난 자 같은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내가 받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같이 넘어져 있는 가정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욕심만을 구하며 살던 인생,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던 인생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희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은총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어나 걷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강도만난 자들과 강도만난 가정과 강도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먼저 회복의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사마리아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크고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자신의 큰 능력을 보고서도 홍해 앞에서 불신과 거역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시편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여 봅시다.
3.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 자신과 인류가 어떻게 되었을지 묵상하여 봅시다.
4. 시인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겨진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106:13~33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 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6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17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어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19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 그는 합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2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24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26 이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7 또 그들의 후손을 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28 그들이 또 브올의 비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 그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

이 그쳤도다 31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32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광야에서의 패역1_마라의 물, 메추라기, 고라, 송아지 숭배(13~23)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런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것이 모두 8편이 있습니다. 특히 146~150편이 대표적입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의 목표점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을 한 부분씩 묵상하지 않고, 성경통독수련회에서와 같이 전체를 통으로 읽으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범죄함의 물줄기가 있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히 여기심과 역사하심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역사하심을 아주 잘 정리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33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13~15)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고 하며 ‘곧’ 잊었다고 합니다. ‘곧’은 ‘민첩하다’, ‘서두르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민첩하게_총알같이’ 잊었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처음 터트렸던 것은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 길을 3일을 걸었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3일을 간다면, 다른 체험은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오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길과 다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메추라기 사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지 2년 2개월이 좀 더 지났을 때에, 먹거리 때문에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던 생선을 비롯하여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 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민11:4~6)”

매일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생식, 점심에는 만나전, 저녁에는 만나스프, 그 다음날에는 만나 샐러드와 만나튀김, 그 다음날에는 만나파이와 만나구이……. 계속해서 만나, 만나. 만나라는 말만 들어도 식욕이 떨어져 거식증이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하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데,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보내 줄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쪽저쪽으로 하룻길씩, 두

규빗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하룻길이 30km라고 한다면, 60km의 길이에, 1규빗이 45.6cm인데, 높이가 91.2cm로 메추라기가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한 달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성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만나를 주시는 은혜’는 맞는 말이지만,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는 틀린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18절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돌아봅니다.

(16~18)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하여,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인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선동하여 항명했습니다. 고향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고라와 그 자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의 일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고라는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때에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 다단, 아비람, 온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김을 당했고,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은 ‘고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다단, 아비람의 이름은 밝히지만, 주동자 고라의 이름을 감추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시편의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은 것도, 11편이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인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후손들을 보고, 조상의 허물을 숨겨 주었다고 합니다. 19~23절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을 돌아봅니다.

(19~23) 그들이 호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호렘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하산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금귀고리를 빼오게 하여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선언하고는 그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꾀내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의 무게가 이러하여 그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기도의 무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무겁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패역②_가나안땅 정탐, 바알브온, 므리바(24~33)

24~27절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24~27)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은 2:10으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기름진 땅’이었다고 보고하며, 그 예로 포도와 석류, 무화과 등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꺾어서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포도송이만 보다가, 제네바에서 외국 포도송이를 보고서야 막대를 꺾어서 들어야 할 정도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골장대한 사람만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반되는 보고를 받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_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뱀)의 말을 더 믿었다가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하였을 때의 성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견고한 삶은 없습니다. 28~31절은 ‘바올브올 사건’을 돌아봅니다.

(28~31) 그들이 또 브올의 비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싯딤에 머무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압신의 신전에 까지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응징하기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자손 2만 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32~33절은 ‘므리바 사건’을 돌아봅니다.

(32~33)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어 말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므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

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는 것 대신에 혈기를 내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심만 해도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들의 광야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적인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엮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생활에서 벌였던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 원망, 자포자기의 물줄기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공흠과 자비, 은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놓으시고,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스러져, 지금은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복사판이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회복시켜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덧입어, 이제는 불순종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림을 그려가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혹 하나님께 과도하게 요구하여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2.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거나,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의 불순종,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시편 106:34~48

34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도다 37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시니 41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43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가나안에서의 우상숭배(34~39)

13~3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중에 있었던,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과 구원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34~48절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불순종,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34~39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했던 우상숭배를 돌아봅니다.

(34)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을 멸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의든 고의든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당장 벌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은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를 오랫동안 치르며,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형편없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재를 왜 낳았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깊고 높은 죄로 말미암아 동물계까지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쇠에 녹이 겉면에만 얇게 슬면 사포로 닦아내면 되지만, 속까지 깊이 녹이 슬면 사포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도가니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또한 다리가 굽혀서 피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고, 뼈에 금이 가면 김스를 하면 되지만, 다리뼈 전체에 암 세포가 가득하거나 썩어가고 있으면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은 도가니에 깊이 녹슨 철을 넣는 것과 같고,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

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큰 전쟁은 전체적으로 치르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은 후, 작은 전쟁은 지파별로 치렸습니다.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작은 전쟁, 사실은 더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지파는 단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아주 높은 곳에 거주한다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아내지 않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35~36)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섞이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혼합하다’, ‘주고받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가나안 사람의 신앙,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뒤섞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진짜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을 섞으면 언제나 ‘가짜 참기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섞으면, 언제나 ‘가짜 신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표면적으로 좋아보여도 실상은 올무에 걸린 상태와 같았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나 토끼는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듯,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와 섞게 되자 점점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37~39)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합종교를 신앙으로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사악한 귀신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 아무리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이었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제 입으로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 그리고 회복의 기도(40~48)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노아 때처럼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분노를 터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아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오심이 생기실 정도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셨습니다. ‘맹렬히 노하다’는 문자적으로 ‘코에 불이 붙었다’입니다. 어릴 때 본 만화에서 머리 위와 코로 김이 쭉쭉 빠지는 모습으로 화가 난 사람을 그려놓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41~42)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넘기다’는 ‘권한을 이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표현을 빌리면, 개혁의 주체

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42절에서 상반절은 주어가 ‘그들의 원수들’이고,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상반절은 능동태이고 하반절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눌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물을 삼켜가며 복종해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 번’은 ‘많은 발자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두 번 또는 몇 번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이 범죄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집을 부리다가 더 죄를 짓는 자리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44~46)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4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이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라며 자기의 판단을 더 우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때에 회복과 은혜와 역전의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신대로만 보응하셨다면, 그들은 인류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한 대로만 갚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특별한 총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은 구원への 간구와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47~4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어”라고 부릅니다.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며 얻게 된 가장 큰 수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참회했습니다. 둘째는 회당제도가 생겼습니다. 포로의 신분이라, 절기가 되었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예(이름)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우리가 동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_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은혜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서 단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누리지 못했고,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낸 350년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약속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신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우상숭배의 깊은 내면에는 반드시 ‘자기 숭배’, 아니 ‘자기 욕망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내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바빌론 포로에로의 흠어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약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크게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착각도 버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 영원한 이웃인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은혜와 찬양의 터전으로 가꾸어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단 한 평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들은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영원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주님, 영원한 이웃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24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약속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2.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고통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나'의 은총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바빌론 포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기적으로 기적으로 1

시편 107:1~16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 여호와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라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심이라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엎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15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16 그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라

찬양과 감사의 부름(1~3)

시편 전체 150편은 모두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07편부터 마지막인 제5권이 시작됩니다. 제5권에는 모두 44편이 있는데, 다른 권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찬양시’가 2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편이 5권에 있습니다. 제1권과 제2권에 ‘탄식시’가 아주 많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탄식시의 구조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을 맺는데, 시편 전체의 구조도 탄식시에서 찬양시로 갑니다.

그리고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뉜 것은, 모세5경의 구조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5권은 신명기에 해당합니다. 신명기의 뜻이 ‘두 번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이 제5권에 있고, 그 내용이 전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5권에는 표제어가 없는 시편,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는 ‘기자 미상’의 시가 많습니다. 44편 가운데 28편이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감동적인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화니 크로스비의 찬송들도 감동스럽고, 여러 감동적인 또는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들도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제게 감동이 되는 찬송들은 누가 작사했는지, 누가 작곡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찬송들입니다. 그 찬송들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 가사를 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이유로 주님을 향한 마

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 등등의 생각이 듭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의 시와 곡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몰라도 우리는 언제나 소망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good(굿)’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선하다’는 의미와 ‘좋다’는 의미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좋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심술쟁이 영감님 같은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따리에 많은 것을 넣어 두고서,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면, 적선하듯이 하나씩 던져주시는 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사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도 영원이고, 떨어지는 순간도 영원의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왕이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에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왕이 마음을 그토록 원악하게 하면서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나가는 것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레스가 귀국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음이 감격스러워하며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광야(사막), 감옥(4~16)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4개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까지에 2개의 그림이 나오고, 그 이후에 2개가 더 나오는데, 서너 번째 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4~9절에 나오는데, ‘광야 사막’입니다.

(4~5)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또는 사막의 큰 특징은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이 말라비틀어진 풀들만 있거나 모래들 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나침반이 있어도 어느 방향에 있는 마을이 가장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온 몸과 정신이 타는 목마름 그 자체입니다. 그 때에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7)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구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새 옷은 설빔이나 추석빔으로 얻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혹 길을 잃으면, “여기_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자”였습니다. 그 때에 혹 어머니의 손을 놓치게 되더라도 약속장소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더 길을 잃게 되고, 거주할 성읍은 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주할 성읍으로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8~9)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인은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에서 온 말인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 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오래 전에 폐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오늘 본문 8절의 ‘기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_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일예배 사도행전에서 배운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베푸심과 불가사의한 섭리의

역사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10~16절에 나오는데, ‘감옥’입니다.

(10~11)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은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에서의 포로생활의 곤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생활은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드가 정지되고, ‘쇼핑중독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식 중독, 드라마 중독, 성 중독 등 모든 중독이 동일함

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탐닉하면, 이내 그것의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12~14)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엎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움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5~16)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빛장을 꺾으셨음이라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빌론에는 놋으로 만든 성문이 100여개가 있었고, 쇠빛장으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쉽게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놋문을 깨뜨리고, 쇠빛장을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의 놋문과 쇠빛장은 우리 힘으로는 깨뜨리고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막이나 광야를 만난 것과 같고, 또 무엇인가에 갇힌 것 같았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웃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길을 인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와 불가사의한 섭리로 인해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다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바른 길이 되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유를 얻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며, 죄의 멍든 끈을 끊어주시고, 불순종의 쇠뿔을 꺾으시는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삶이 광야나 사막과 같이 생각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으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3.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매여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기적으로 기적으로 2

시편 107:17~43

17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9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3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니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33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

게 하시며 34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35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36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39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40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41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 떼 같이 지켜 주시나니 42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도다 43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도다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 병상, 바다 (17~32절)

시편 107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4개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4~9절에 나오는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은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른 풀과 모래 밖에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헤매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0~16절에 나오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

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수가 되어 실 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해도, 인간은 무엇인가에 빠지고, 중독되어 그것의 감옥에 갇힌 인생이 많습니다. 자유하 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는데, 정작 자신이 발견되는 곳은 인생의 감옥 안입니다. 인생 감옥의 늦문을 깨뜨리고, 감옥문의 쇠빛장을 꺾어 주실 분이 하나님 밖 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17~22절에 나오는 데, ‘병상(病床)’입니다.

(17~18)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기보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인생의 최 고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삶의 양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범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자행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길 자체가 휘어지고, 뒤틀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길 속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즉 삶의 틀도 바르지 않고, 틀

속의 삶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 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음식물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9~20)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바르지 못한 틀과 그 속의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지라도, 그가 부르짖으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건져 올려 주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고치시고 건져 올리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른 길을 걸으며 신실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매일 하루분량씩 내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 그 글이 읽히는 동시에,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가만히 들으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번째 그림이 23~32절에 나오는데, ‘바다’입니다.

(23~27)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 한 가운데서 태풍은 만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 살며 배를 자주 탔었기 때문에 거의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1번 뱃멀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거제도를 오가는 배를 탔을 때였는데(지금은 거가대교가 놓여서 자동차로 다닙니다), 부산에서 거제도로 갈 때는 괜 찼었는데,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올 때에 멀미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제 몸이 바닥으로 끝없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높이 뿔다가 가라앉곤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과 같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오목하게와 볼록하게 요철모양으로 자르고 아교를 발라, 서로 맞물리도록 끼워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래 있어서 습기로 인해서나 배를 때리는 파도로 인해서 아교의 접착력이 떨어지면, 배가 찢어졌습니다. 당시에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탄식하며, 사람들이 극심한 뱃멀미로 인해서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도 하여, 인간의 지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요청해야할 상황이 되면, 그 국가는 경제적으로 초강력 태풍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가정경제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태풍

을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의 적신호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몸이 끝도 없는 바닥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8~30)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고통의 지경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태풍 속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 (33~43절)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4개의 그림 언어로 말한 후에,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3~34)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 있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척박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지를 땅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 것과 같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전이 된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8~9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하니 그들에게도 땅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35~39)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데

시인은 33~34절에 있었던 것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삶에 강이었던 부분이 광야가 된 것 같고, 샘이었던

던 것이 마른 땅이 된 것 같고, 분명히 좋은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금밭이 된 것처럼 여겨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이 샘물과 같고, 좋은 포도원 같고, 풍성한 목장과 같아도 교만하지 않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었던 것이 복이 되지 않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43)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 떼 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니라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증명되고 납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4개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광야 사막과 감옥, 병상, 바다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나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게다가 태양이 작열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대상(隊商)과 같이 길을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 주어야 거주할 성읍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은 못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빗장이 무쇠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가 저절로 고백될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감기몸살 정도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때는 아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에 일엽편주를 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휘몰아치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 사막에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에 갇힌 것 같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엇에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네 그림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6, 13, 19, 28절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13절이 이릅니다.

(13)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말씀은 8, 15, 21, 31절의 말씀인데,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31절입니다.

(3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해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기적으로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인가에 매여 그것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문빛장을 깨뜨려 자유하게 해 주시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누워있을 때에 기적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인생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절망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에 신묘막측한 은혜와 불가사의한 섭리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치유자로, 생명의 항해자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총의 연결고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당신의 인생에서 음식을 먹기 싫을 정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2. 당신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태풍을 만났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바람을 어떻게 잠재우셨으며, 어떻게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3. 인생길 가운데 좋은 땅이 소금밭이 되거나,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는 것과 같은 역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시며,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3

내게 주신
바로 그 말씀

시편 108:1~13

[다윗의 찬송 시]

1 하나님이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6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7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8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9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10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들이며 누가 나를 예뎠으로 인도할꼬 11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까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2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 이로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1~3절)

(1~3)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표준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 표준새번역)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깟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다고 합니다.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와 연관시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찬양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는 분명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4~5절)

(4~5)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어 다윗이 찬양하기로 마음 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실이 구름을 뚫고 우주 공간을 지나 하늘을 넘어가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거짓과 불의의 그림자의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 그 자체와 같은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제한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에 대해 땅에서 뛰는 메뚜기 정도의 높이만 알 뿐이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높이와

시야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겪어보지 않고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수준의 사랑과 진실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을 모르거나, 십자가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결여되어 있거나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화되거나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은 결코 식어지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6~9절)

표준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9, 표준새번역)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겔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축광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려"

다윗은 자신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신 말씀은 세겔과 숙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등등의 지명과 지역,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투구, 지팡이, 목욕통, 신발 등등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도구들이 다 내 것이라는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통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낙심하고, 걱정하고, 때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나 질문과 상황에 대해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를 걱정과 염려와 위기와 슬픔에서 건져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함과 인자함으로 끝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13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말씀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듯,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응답으로 삼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겸손하고 용감한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하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다윗이 정한 마음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3. 우리 삶의 문제와 질문과 상황에 대한 응답은 누가 주시며 어떻게 주십니까?

4.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묵상해 봅시다.

14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09:1~3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어 잠잠하지 마옵소서 2 그들이 악한 입과 거
 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 또 미워하는 말
 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 그들이 악으로 나
 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 악인이 그를 다
 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 그
 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 그의 자녀
 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 고리대금하는 자
 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낫선 사람이 탈취
 하게 하시며 12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13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 여호와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
 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15 그 죄악을 항상 여
 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6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7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19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1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3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24 금식하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25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나이다 2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줄 거워하리이다 29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겹옷 같이 입게 하소서 30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31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10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표제어를 통해 시인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이러한 탄원시를 기록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아,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에서 현재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탄원의 이유와 내용(1~20)

탄원의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대적자를 고발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라고 부릅니다. 시편 109편의 마지막에 다시 찬양의 고백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윗은 비록 이 시가 탄원시이지만, 단순히 탄원을 넘어 구원과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이라는 주제로 본 시편을 열고 닫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5)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탄원의 이유에 대해 다윗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대적자가 다윗을 공격하는데에는 딱히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적합니다. 4절의 ‘대적하다’를 공동번역에서는 ‘고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도리어 피고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고하게 비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악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13)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대적자들이 받아야 할 벌은 세상에서 사는 연수가 짧아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고, 자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저주를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시를 지휘자에 맞춰 찬양대가 함께 불렀다는 표제어를 보면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비단 다윗의 상황이 우리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변에 송사한다 한들, 해결되기는커녕 우리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또 나를 이러한 상황에 몰아세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면,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하지만, 성경에 본 시편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21~29)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그저 탄원시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21)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구합니다. 구원을 간구하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 있으며, 중심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석양 그림자의 사라짐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사라진다는 슬픔도 표현합니다. 또한 메뚜기와 같이 내쳐짐을 받았고,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해졌다고 말합니다. 수(瘦)와 척(瘠)은 모두 '여위다', '마르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척은 병상에 드러누운 모양을 보여주는 병질엄(疔)과 등마루 척(脊)자가 합하여 뼈와 관련된 어떤 고통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수척해졌다는 것은 결국 뼈 속의 진액까지 모두 말라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수척은 단순히 핏줄이 말라가는 것을 넘어,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은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찬양(30~31)

다윗은 구원의 고백과 함께 반드시 자신에게 구원이 미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담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30~31)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감사이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저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구원으로, 구원을 감사로 이어갔고, 그 감사의 찬양이 이렇게 시편에 담겨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고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개입해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볼까하는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도리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상황들 앞에 우리가 위축되기보다는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곳에 심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이 언제였으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2.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묵상해 봅시다.
3.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4. 시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만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1~7

[다윗의 시]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 못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 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 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통치자이신 메시아(1~3절)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립니다. 이런 종류의 시가 시편에 모두 7편(2, 16, 22, 24, 45, 72, 11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시편 22편이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 가장 잘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110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메시아의 왕 되심을 노래한 것은,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을 잊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강하시며, 그분의 다스림은 완전하며 한계가 없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늘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삶의 내용과 질, 목표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1~3절은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주’에서 ‘내’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며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우

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거의 수수께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주’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와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주’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주라고 부른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치욕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경술국치’와 더불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패하고, 인조 임금이 청 태종에게 기어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삼전도의 굴욕’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경술국치와 같은 나라를 빼앗긴 일도 없었고, ‘삼전도의 굴욕’과 같은 일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서도,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_아도나이’는 종과 제자, 신하가 자신의윗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주’라고 말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으니,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내 주’는 ‘메시아’를 가키는 말입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당신의 조상인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했습니다.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전한 나라의 임금은 패전한 나라 임금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을 대신하여 가나안 남쪽에 위치했던 다섯 왕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전한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대부분이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야 41:10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은 힘이 없으시고, 오른손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저리로서(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처음에 구속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나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규를 내밀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왕에게 출입하는 것을 철

저하게 통제함으로 왕이 시해를 당하거나 위협에 빠지는 것을 막고, 사람들에게 왕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인식시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이유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것은, 왕이 금 규를 내밀어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자신은 왕에게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왕의 애정이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심으로,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활을 내어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변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메시아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성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감

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단지 ‘젊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상반절에 말한 ‘주의 백성’과 같은 의미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 한 낮에는 풀들이 다 말라 있는 것 같아도, 새벽이 되면 풀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 내듯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은 풀잎이 없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4~7절은 제사장과 승리자이신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제사장과 승리자이신 메시아(4~7절)

(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 4개국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5개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승전한 북부 연합군이 남쪽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함께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롯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그 분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살렘(평강)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다윗은 인간 제사장은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동등한 서열에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7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합니다.

(5~7)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못 나라를 심판하여 사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심과 심판주이심을 함께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심판주가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 가의 시냇물 마신다'는 의미는 '모든 싸움을 끝낸 후에 타는 목을 축이다'입니다. 마치 전쟁영화에서, 적을 모두 물리친 후에 군인들이 시냇가에 앉아서 서로 미소를 지으며, 수통에 물을 담아 마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과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 됨보다 메시아의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소망하였기에 이런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 군림하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도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람들을 섬김에 샘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며,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가족들과 사람들을 섬김으로 삶으로 예배를 완성해 가는 한 날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같이 영원한 생명을 머금은 삶이 되며, 영원한 제사장인 주님과 보퉁을 맞추어 사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수단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왕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도 알며, 심판주이심도 알고 인정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높여 왕의 모범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높아 보이든지 낮아 보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것을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라 여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속죄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3.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면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섬기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6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시편 111:1~10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5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 그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함(1~4절)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없기에, 누가 기록하였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에 불렸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절기 때의 노래로 불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 되는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자인데, 1~8절까지는 상반절과 하반절에 각각 알파벳 하나씩 사용되었고, 9~10절에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 각각의 알파벳이 사용되어 3개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2~3번만 들으면 금방 암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인 112편과 쌍둥이 시편이라 불립니다.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모임’은 ‘소규모의 사적인 만남’이라면, ‘회중’은 ‘대규모의 공적인 집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모임의 크기와 상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나님을 찬양’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10명이 모인 곳에서나, 100명이 모인 곳, 1000명이 모인 곳에서 등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모임에서 기도하든, 주일 예배

에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모임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지라도,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역시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태도는 ‘전심’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심’에서 ‘심(心)’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은 ‘관심’ 정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혼’, 또는 우리의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全)(히.כול)’의 문자적인 뜻은 ‘나뉘지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완전한 모양의 것’을 뜻하는 ‘온거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은 우리말 고어로 숫자 ‘10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은 ‘온거짜리 마음’, ‘100%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전심으로 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 1:5~8)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심이 아니라 ‘반심(半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

심'이나 '삼분의 일 심', '십 분의 일 심'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연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주인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의 몇 %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눈에는 주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크고 놀랍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인의 행동을 연구하겠다고 작심하고, 연구하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반려견, 반려묘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와 신묘막측한 섭리'를 조금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빛이 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사필귀정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위공직자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 뿐만 아니라 몇 십 년 전의 일까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청문(듣고 물어봄)해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와 눈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시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가

지 인도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당신의 백성들을 삼지 않으시고,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택해야 모양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된 것은 ‘그(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트리며,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노래함(5~10절)

5~10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지를 노래합니다.

(5~6)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주셨습니다. 사실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게 하였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발이 부르츠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입으신 옷 중에서 지금도 입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옷이 여러 벌 있어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감이 좋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이 다 ‘단벌 신사복’, ‘단벌 숙녀복’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신사복 숙녀복이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40년을 입고 사용했습니다.

오래 전 양복광고에서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막 사 입어도 일 년 된 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 년 된 듯한 옷” 이것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처음 입고도 막 만든 듯한 옷, 40년을 입어도 막 만든 듯한 옷”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노예들이 무장봉기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군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함성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하나님)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7~8)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진실하며(확실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바뀌어가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사용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은 순종하면 언제나 확인하게 됩니다.

(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속량하다’의 뜻은 ‘몸값을 주고 사오다’입니다. 이것은 하

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크게 속량하신 일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와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시대를 비롯하여 그 이후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속량하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하다

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본’은 ‘출발점’,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높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며,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첩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반복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

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또한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을 섬기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우리 각자가 올려드리는 시편 111편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량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40년간의 광야생활에서도 만나로 먹이시며, 그 긴 세월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가며,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감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시편 111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편 112:1~10

1. 시인은 작은 모임에서도 큰 집회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찬양)를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를 드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당신도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해보십시오.
3.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의인이 받을 복(1~4절)

시편 112편은 111편과 닮은 점이 많아 쌍둥이 시편이라 불립니다. 두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시편이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그리고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시편은 모두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acrostic)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모두 22자인데, 두 시편이 모두, 1~8절까지는 히브리어 자음을 2개씩, 상반절과 하반절 머리글자에 사용하였고, 9~10절에는 3개씩,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머리글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했는데, 112편 1절에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단어 끝말잇기처럼, ‘마지막 문장 잇기’와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2절인, 역대하 36:22~23과 다음 권인 에스라서의 첫 시작인 에스라 1:1~3절이 거의 흡사하여, 에스라서와 역대기를 모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112편은 모두 표제어가 없어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시편은 내용적으로는 다른데,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예배시’인 반면에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는 ‘지혜시’입니다.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인은 복이 있는 두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외’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공포심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유한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과 영원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신 창조주와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르게 살며, 그러면서도 학문과 인생에 깊은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깊습니다. 그 분 앞에 가기 전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되고, 그 앞에서는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해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경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와 점심을 한 번 먹으려면, 수십 만 불을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사람들,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함께 밥을 먹으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잘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투자에

관한 한, 워렌 버핏의 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 5: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을 받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2~3)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요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시인은 이제는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대에 부와 재물을 가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 자체가 복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함에도 잘 자라는 백합화를 가리키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와 꽃 한 송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꽃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인생 후반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도 없었지만, 들의 백합화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하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워하여, 악함에 불의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빛이 없는 터널 속을 걸을지라도 빛이 일어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누는 복(5~10절)

-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 (9)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며, 치우침이 없이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

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합니다.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줘니까? 전 세계 곳곳에 거대 무덤인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것만 해도 138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피라미드가 누구의 무덤인지 그 주인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파라오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 영원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서, 거기에 묻힌 사람의 위대함보다 인생무상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새겨진 우리의 이름도 영원합니다.

(7~8)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아무리 흉한 소식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시 1:4~5)” 사실 악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악인들이 분노하면서 의인의 모습을 보고서, 이를 “뽕드득”하고 갈지라도, 악인들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악인들이 분노하면서 의인들을 부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큰 분노를 낼지라도 의인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은, 하나님

께서 편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줄의 삶을 살며, 그가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과 정의를 행함으로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씨줄의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예배의 날줄과 섬김의 씨줄의 교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날줄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씨줄의 삶을 살아, 복 있는 사람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그리고 넓게, 높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쌓아두는 저장고가 아니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날줄의 삶과 사람들을 향한 씨줄의 삶이 교직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런 매일 매일이 모여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리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혹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시편 113:1~9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 이
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4 여호와는 모
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
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느도다 할렐루야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1~3절)

오늘 본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Hallel Psalms)’
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113~118편까지를 제1할렐시편,
136편(또는 120~136편)은 제2할렐시편(대할렐시편), 146~150
편까지를 제3할렐시편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이 시편들 속에는
‘할렐_너희는 찬양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인, 유월절(무교절), 칠칠절, 초

막절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할렐시편인 113~118편은 유월절에 주로
불렀는데, 113~114편은 식사 전에, 115~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
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올리브)산으로 향하셨는데, 그 때에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마 26:30, 막
14:2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5~118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에는 113~114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는 히브리
말 그대로 써 놓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그 뜻을 써 놓기도 하
고 했습니다. 과거에 ‘기성복’을 표현할 할 때, 특히 ‘고급 기성
복’을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라고 했습니다. 또 ‘모나미
(Mon Ami)’는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둘 다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문서를 번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프레타포르테’
로 하고, 또 어떤 때는 ‘고급 기성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나미_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가 ‘할렐루’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와 이름을 할렐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할렐루_우리 찬양합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말의 강조입니다. 이 시편이 ‘유월절’에 노래로 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광복절’이 가까워오면, 해방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설교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해방을 맞을 때에 19살이었는데, 기쁨에 겨워, 목이 쉬어도 그치지 않고 만세를 불렀노라’며, 그 환희에 찬 감정으로 설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종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호와와 종들아’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읽힙니다. “이스라엘 동포(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 때에 우리는 ‘애굽의 종’, ‘바로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출애

굽하게 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열어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반석의 물로 먹이셨고,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지금까지 올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인,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 찬양합시다.”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지라도

1절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2절은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즉 ‘평생 동안’입니다. ‘평생’이란 단어의 의미 속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과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곡식과 실과를 결실하는 때, 하늘이 높고 맑은 가을과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흥얼거려질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와 같이 폭우가 삶에 쏟아져 상황과 감정이 몹시도 우울하며, 작열하는 태양빛으로 삶이 몹시도 지치는 한 여름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눈보라와 함께 북서풍이 휘몰아치는 한

겨울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찬양보다, “하나님 왜입니까?”라고 질문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뿐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1절이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2절이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3절은 찬양을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 나라만 해도 195개국입니다. 그 외에도 승인 받지 못한 나라와 자치국 등을 모두 합하면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가 돋지 않는 나라가 없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해가 뜰과 짐 사이에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를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미전도종족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9절까지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4~9절)

(4) 여호와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 왕들은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높아도,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한 줄로 위로 세운다 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물건이나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을 넘을 수가 없듯이, 우주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5~6)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며 수사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수사의문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려고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계서 서민들의 삶을 살피겠노라며, 옥탑방 생활을 한 달 하셨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흉내입니다. 실제로 옥탑방에 사는 것과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전 세계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삶을 공감해 보겠노라며, 방송국이 주관하는 24시간 굶는 기아체험하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것 역시 행사입니다. 그 24시간동안 온갖 재미있는 공연을 다 보여줍니다. 기아체험 행사를 하는 것과 실제로 기아에 허덕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니씩 먹는 것과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도 가난하여 하루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는 것과는 동일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기 위해서(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파리, 모기, 하루살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곤충이 되는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곤충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지만, 유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스란히 인간으로 사시고, 당시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분,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 피조물을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받으셔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7~9)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5~6절에서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 노래했다면, 7~9절에서는 그렇게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먼지 더미이고, 거름 더미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묵상하다가 20년 전 쯤에 본 거지들의 삶을 그린 <왕초>라는 TV드라마가 기억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극중 인물들의 이름이 앵무새, 까마귀, 날파리, 하마, 맨발, 쌍칼, 도끼 등입니다. 그들은 사람이어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

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이 온갖 쓰레기로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거름 더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귀공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난임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브닌나부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회막에서 우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자기 여주인이 허락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그 때부터 하갈(종)은 사라(주인)를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 주인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강조하며, ‘할렐루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인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생활화로, 생활의 예배화로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이 시편 113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뜬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며,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도 높으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 오심을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 삶의 자리가 먼지 더미 같고 거름 더미와 같을 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필요한 일 한 가지’를 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자이신
하나님

시편 114:1~8

1. 하나님은 찬양받으심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최근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찬양을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하늘 끝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져 주심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3.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높여주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낮아져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6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제1할렐시편 중 두 번째에 속하며 113편과 함께 유월절 식사 전에 불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1~2)

(1~2)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과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는 독특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가, 다시 말해 히브리어가 이집트어와는 구별되는 언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어가 다른'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서 원문 '라아즈'를 직역하면 '야만적으로 말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야만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히브리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히브리어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택받은 언어, 구별된 언어로 찬양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의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바꾸면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초자연적 현상의 주재(3~6)

(3~6)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가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단이 물러감은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뜻합니

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초월적인 사건으로 산들이 숫양들 같이,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표현합니다. 보통 숫양이, 어린 양이 뛰었다는 말은 기쁨을 표현하는 비유이지만 오늘의 본문은 앞의 문맥에 비추어볼 때, 깜짝 놀라 뛰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인해 산들이 요동칠 정도였습니다. 5절과 6절은 앞의 3절과 4절을 의문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왜인가, 산들이 양과 같이 뛰 정도로 기겁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기절초풍할만한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반드시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뛰놀며 세계가 놀란 위대한 사건이 어떤 권능으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7~8)

(7~8)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세계의 땅은, 그리고 모든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부복해야 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강력한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석과 차돌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심은 모세를 통해 바위에

서 물이 흘러나온 민수기 20장의 트리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하여 물 한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건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두 장면을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홍해에서 물이 갈라진 장면과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장면입니다. 물이 차고 넘쳐 흘러 사방이 온통 물인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메말랐습니다. 반면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광야에서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각인시키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없이 하시고,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 넘으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게도 없게도 하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과 마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바다도 산도 광야도 강력한 군대도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미미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며 흥분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적의 순간을 떠올리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만방이 알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이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잠을 청하는 이불 속에서도, 슬픔이 몰려오고 방향의 끝자락에 서 있어도 시편 114편을 기억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없이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에워싸고 질병이 창궐하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도가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주저 앉아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 6:25~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떨쳐냅니다. 가장 필요한 한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 분을 예배하는 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삶을 꾸려 나갑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감으로 나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꾸라지고 육여쌈을 당하며 조롱과 괘시를 받는다 하여도 끝내는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1~18

1.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과 같이 살아오며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사건은 찬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책장 한 권에 고이 놓여 있습니까?
3. 인생의 좌절과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매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의 예배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가길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
 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
 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입
 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
 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
 라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
 로다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
 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
 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 여호와께서 우
 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도 복을 주시며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
 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

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1~3절)

오늘 본문인 115편은 할렐 즉 ‘너희는 찬양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에 붙렸기 때문에 ‘할렐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1할렐 시편에 속합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인간인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기며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 그의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 순간 묵상하고 기억해 낸다면, 그 기억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현재의 자리를 제대로 해석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다른 것에 의해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한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 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또 인생의 목적 즉 인생이 궁극적으로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이 빈정거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분이라는 것이 그 조롱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조롱받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의해 결코 변화되지 않으시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고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심을 말합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한번 약

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시인은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이런 주님의 간섭하심이 결국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고 그 성품을 의지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또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진실함의 성품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에 침묵으로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는 이방인의 빈정거림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과 피조물,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대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피조물과 또 그 피조물이 만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상(4~8절)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4~8)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신의 생명이 있다고 이방인들은 믿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 역시 무능함에 머물 것이고, 결국 허망함과 비참함의 파멸로 빠져들 것임을 시인은 말합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 삼으려는 시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기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리라 여기는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이 분명히 밝히는 우상의 무능함과 이 길의 허망함을 주의 깊게 듣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의지할 분(9~11절)

이제 시인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9~11)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인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3번을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면 그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축복기원(12~15절)

이 강조 후에 시인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9~11절에 대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복은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번창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번창은 단순히 수적인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것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16~18절)

축복기원 후 이제 찬양으로 시는 마무리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우리의 소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는 날 동안 위임받아 살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주뿐 아니라 인생의 작은 한 개인사까지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생을 거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는 하루이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의 형편이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진실하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2. 나는 현재 무언가를 우상 삼으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않습니까?
3. 나는 우상의 실체를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오늘 새롭게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21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1~19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
 났을 때에 4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
 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
 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
 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 내가 생명
 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
 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여호
 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 여호와
 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18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서 내가 지키리로다 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구원의 감사(1~9절)

시편 113~118편까지의 6편의 시는 ‘제1할렐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본문 116편은 그 중에서 4번째 시편입니다. 생명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처했던 시인이 거기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감사찬양시이자 서원시입니다.

(1~2)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와 간구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도 결단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시인에게 기울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말할 때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서로 입과 귀를 맞댑니다. 2절의 ‘기울이시다’가 문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시인에게 갖다 대시듯이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청력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과 행동’을 의미 하듯이, 시인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 과거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고, 이것에도 응답하실 것이기 때 문에, 미래에도 즉 남은 생애동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지금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 신이 들지 않기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 미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 ‘Yes’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의 응답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무엇을 사 달라거나 요구할 때에, 그것을 100%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동일할 때에는 그대로 들어주기도 하지만, 당 장 필요한 것이 아닐 때에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면 “no_아 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자녀에게 깨 달음을 주기 위해서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요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아니라, “나중에” 나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은 언제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3~5)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망의 줄’과 ‘스올(음부, 지옥)의 고통’은 같은 의미로 살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는 조그만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온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낸 것 같은데 도 여전히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르지 않은 삶을 살았 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6~7)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순진한 사람’은 ‘단순하여 어리석은 가르침도 잘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봄가을로 소풍을 갔습니다. 대부분은 학교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 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구걸해서 먹는 사람들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때에 장사꾼들과 야바위꾼들도 함께 따라오곤 했습니다. 야바위꾼들이 어린 아이들의 돈을 우려먹기 위해서 빨간 카드집기 도박게임을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카드 3장 중, 2장은 아무 그림이 없고, 1장에는 일장기와 같이 둥근 빨간 점이 있었는데, 그 빨간 카드를 고르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다가 점점 어렵게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돈 대부분이 야바위꾼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순진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지극히 총명하여 사리분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신약의 사도들, 사도 바울 등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후대하여 건져 올려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은총을 베푸심)으로 ‘순진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건져 올려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8~9)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원 이행에의 결단(10~19절)

시인이 1~9절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이제 10~19절에서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10~11)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죽음의 줄에 포박된 것 같고, 스올(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환난과 슬픔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나는 믿었다_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_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그 도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또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2~14)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뜻하는 말

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함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은혜’,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선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구원의 잔’에서 ‘구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구원과 은혜’를 뜻합니다. 시인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섬김을 받음을 좋아하는 것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다’는 단어는 ‘빛나다’, ‘희귀하다’, ‘값비싸다’의 의미입니다. 금과 같은 물질은 빛나고 희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금을 비롯한 모든 보석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을 빛나게 여겨주시고, 흔하지 않게 여겨주시며, 값비싸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함께 죽음도 의미와 가치가 큼니다. 모

든 죽음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값비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생각대로 삽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었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시인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 주의 종으로 살고, 또 주의 종의 아들과 딸이 그 자녀들에게 주의 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면, 그 가정은 참 복되며, 신앙의 명가(名家)가 될 것입니다.

(17~19)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모든 앞에서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감사도 크고 깊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인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마르뒤스(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8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 자신은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악한 존재라 여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 투옥시키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사도로까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 평생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를 얽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환난을 겪고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에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이 지극히 커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와 성전 뜰에서 감사하며, 자신이 약속한 서원을 지키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불가사의한 은혜가 많았고, 신묘막측한 섭리가 허다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 절이 넘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지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줄’이 두른 것과 같은 환난과 슬픔을 겪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까?
2.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보답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며, 시인은 자신이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시편 117:1~2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들의 찬양(1절)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은 제1할렐시편인 113~118편 중에서 5번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단 2절로 구성된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1189장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이’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성경은 ‘찬양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할랄’의 명령형인 ‘할렐루’로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

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하라’에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고, ‘모든 백성들(민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브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있을 때에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된다든지, 가나안에서나 애굽에서 고위관리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창고’나 ‘복의 저수지’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통

로'로,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게 되심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21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 노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로 확대되었는데, 더욱 확대가 됩니다.

(시 148:1~5)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나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들과 해와 달과 별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신약성경으로도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9~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 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과 땅 아래 모두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근거(2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2절이 잘 밝혀줍니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2절은 ‘키(왜냐하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자하심(헤세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계약)은 한 번 맺으면 그 정한 날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기간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여러 영어성경에는 ‘unfailing love/kindness(실패하지 않는 사랑/친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넓고 깊습니다.

‘진실하심(에메트)’은 ‘신실함’, ‘믿음직함’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중학교 때 영어수업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문장은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해가 서쪽에 떴다가 동쪽으로 지거나, 남쪽에서 떴다가 북쪽으로 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은 지구의 위성이기 때문에 항상 지구 주위를 돕니다. 달이 올해는 지구 주위를 돌았지만, 내년에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일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것보다 더 한결같습니다. 태양과 달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점점 더더지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을 부추겨, 자신들을 인도한 신(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드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잘하였다고 생각하여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의분이 가득하여, 손에 들고 있던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려버

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뜨린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역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자하심(헤세드)’와 ‘진실하심(에메트)’의 은혜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모세의 시대에도, 500년 후인 다윗의 시대에도, 또 500년 후인 유다가 망할 때에도, 그리고 500년 후인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리고 1500년 후인 종교개혁 때에도, 그리고 또 500년 후인 지금도, 앞으로 500년, 5000년, 50000년 후에도 여전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할렐루야’는 3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랄’이라는 동사와 복수형의 접미어인 ‘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가 합쳐져서 ‘여호와(하나님)를 찬양하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 ‘할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

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삶으로 당신을 빛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당신만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미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미치다’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보다 ‘지배받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미친 것이고, 운동의 지배를 받으면, 운동에 미친 것이고, 물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지배만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단순히 인사로 쓰일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랄’이라는 동사는 언제나 ‘강조형’으로만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강조형이 되면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신교국가였습니다. 다신교에서는 신이 중요하지 않고, 정성이 중요합니다. 아무 신이든지 응답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에게든 열심히 치성(致誠)

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렐루 바알!”을 외치기도 하고, “할렐루 아스다뫼!”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은 “할렐루야”가 아니라면, 앞의 “할렐루”는 무의미합니다. “할렐루 하나님”이 아니라, ‘할렐루 세속적 가치관’이나 ‘할렐루 내 욕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미신이 세어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 교주”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틀린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틀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를 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렐루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온 삶으로 ‘할렐루야’, ‘할렐루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얹는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신사도행전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모든 백성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이 크시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진실하심도 불가사의하고, 신묘막측 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빛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온 삶이 ‘할렐루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할렐루 세상’이나, ‘할렐루 내 욕심과 야망’이라고 했다가 낭패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시편 118:1~29

1.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당신의 폐부에 깊게 와 닿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할렐루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할렐루야’와 ‘할렐루 세속적 가치관(욕망)’ 중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3.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을 가만히 읊조리고 되새겨 보십시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하며, ‘할렐루 하나님의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2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3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4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8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 못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 여호와께서 나

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 이는 여호와 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28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의 권능을 베푸심에 감사(1~20절)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113~118편까지 이어지는 ‘제1할렐시편’ 중에 마지막 6번째에 해당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도 1절과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해

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글의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시오(inclusio)’라고 합니다.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미상관구조(수미쌍관구조)_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 있는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에서 ‘감사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에 깊은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시인의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의 시작이 접속사 ‘키(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헤세드)’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계약)으로 맺어 주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 와서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쳐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9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늘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판 일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마

침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보복을 할 것이라며, 요셉을 판지 약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2~4)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이제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2~4절은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가 반복되고, 찬양의 주체만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압박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지라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여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여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문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7)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 이시라”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라”고 함께 고백해야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조력자(조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9)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즉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사람의 편’이 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의 편’이 되는 것보다도 낫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낫지 못함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만물의 이치 중, 20%는 알겠습니까? 10%는 알겠습니까? 1%는 알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아무 것도 모른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옳음은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동안 갖고 있게 됩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불과 5년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여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십년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못 나라에 의해 포위가 되어도, 또 대적들이 별떼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6)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데,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고, 권능을 베푸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이 능력과 찬송, 구원이 되신다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19~20)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나라에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 처했었고, 대적들이 별떼처럼 달려들어 위경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에서 진창에 빠지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것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드시고 행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21~29절)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22~23)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눈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이라면, 건축재료로서는 가치가 없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은 네모나게 다듬어 건물벽의 기초로 삼기 위해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건물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에서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시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멸시받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나 이제는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기이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인용되어,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등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완전히 버린 것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원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26~28)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접 ‘왕’이라고 쓰지 않음은 왕을 세움과 왕의 다스림은 모두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며, 제단 뿔에 제물을 매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인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

하신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해결해할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감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올인하게 함으로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피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머릿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깊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위에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내 내편이 되어주셨거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2.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신뢰했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였다가 승리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게 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 세속적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시편 119:1~16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
 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 내 길을 굳게 정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
 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
 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
 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
 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
 로 선포하였으며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
 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
 리이다

인생의 복 - 하나님의 법(1~8절)

시편 117편이 시편에서와 성경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오
 늘부터 약 2주간 11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踏冠體) 머리(갓)를 밟는 문체 시편’
 이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8편의 답관체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 7번째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답관체
 시편의 백미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납니다. 각각의 히브리어 알
 파벳이 각 8절에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는 1~8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는 9~16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어 자음은 모두 22자입니다. 그래서 22자가 8절씩에 들어가 있
 어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의 별명이 ‘말씀 시편’입니다. 176절
 중에서 단 4절(84, 90, 122, 132절)을 제외하고, 172절이 모두
 ‘말씀(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
 지,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1~2)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삶이 비난을 받지 않음)하

며,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인생사용설명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게 하심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복이 있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르다’와 ‘똑바로 걷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와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1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말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신앙의 삶과 삶의 신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일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도를 행한다고 합니다. 즉 신앙의 삶과 삶의 신앙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바르게 성숙해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끊고, 긍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갑니다.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명령하다’는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강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사탄)의 꾀에 넘어가 금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숨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과 4절의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명(御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6)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고대에는 지켜야할 규칙이나 법령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 두곤 했습니다. 그것이 ‘율례’입니다. 마치 등산을 가게 되면, 그 산 아래에 있는 입구에,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산을 오르내릴 때 지켜야할 유의사항을 기록한 설명판을 세워놓습니다. 그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모두가 꼭 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켜야할 말씀을 새겨 세워놓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말씀을 지키이지, 부분의 말씀을 지키는 아닙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지키게 되면,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킨 부분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8)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우게 되면, 마음과 정신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말씀을 주셔서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때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표현은 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큰 곤경에 처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통해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을 아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 - 하나님의 말씀(9~16절)

(9~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열기왕성한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진리임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빨리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형제와 자매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서로 답답하게 여기며,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전에는 그토록 밋밋하고 재미없게 보였는데,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재미있게 보였는데, 살아보면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9~11절은 다윗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고백한 것일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제게 아주 크게 여겨지고, 기이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서 가드왕 아거스에게로 도망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하고, 대문쪽에 글을 그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흘리는 방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때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34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34:8~10)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위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위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사자(청년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겨났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울분을 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가장 열기왕성한 때인 20대입니다. 그 때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 문입니다.

(12~14)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만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바른 길임을 깨달은 시인은 바른 삶을 살도록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른 것임을 전하겠다고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것을 즐거워하듯이,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진 재산이 조금 늘어가는 것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재산)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해 만족을 하는 정도는 언제나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 등에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두 가지, 또는 몇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만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전혀 다른 차원입

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재물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15~16)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공부를 할 때에 논어와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역경과 같은 사서삼경들을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즉 그 내용을 눈으로 외우지 않고 입으로 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만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면 그 느낌과 깨달음이 다릅니다. 외국어를 눈으로 만이 아니라 입으로 익힐 때에 자기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입으로 익히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음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무도 살려하지 않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여주셨고, 우리까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매일매일 지켜 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견고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과 손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이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첩경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며,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역사를 펼쳐 가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넓히실 때에

시편 119:17~32

1.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2.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걷는)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3. 삶을 새롭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7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 나는 땅
 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1 교만하여 저주를 받
 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 내가 주
 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 고관들
 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4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나이다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26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 거
 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의 규칙에 따라 오늘 살펴볼 본문 시편 119편 17~24절의 첫머리 글자에는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 ‘김멜’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 알파벳 ‘달레트’는 25~32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다보면 시인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절박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함(17~20)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의 시인도 지금 인생의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고, 그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커다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간구는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은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는 전에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을 통해 그 대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육체의 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앞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반면, 반대로 세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눈의 즐거움을 위해 부와 미와 사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부요함,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눈이 더 크게 열려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말씀의 깊은 비밀을 발견해 가며 영적으로 눈을 더 크게 떠 가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에게 말씀의 놀라운 깊이와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20절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본문의 ‘상하나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까레싸’는 ‘으깨지다’, ‘분쇄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마치 시인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으깨어지고,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자신의 상황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시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선택할 인생(21~24)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교만한자, 저주 받은자,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25~32)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 ‘달레트’로 시작하는 25절부터 32절에

서는 ‘길’과 연관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의 길, 계명의 길, 성실한 길은 택하여 걸어가지만 거짓된 길은 철저히 미워한 채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길’이라는 단어를 ‘행위’로 바꾸어 보면 시인의 다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는 행위,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 성실한 행위는 지켜나가지만 반면에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읽다보면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가운데 25절과 28절의 내용은 시인이 겪는 고난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통해 시인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어있다’는 의미는 ‘죽어 흙에 묻혀서 그의 몸이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는 의미로써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말 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자신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건져 내어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인 상태에 있던 시인이 하나님께 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은 28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8)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놀림으로 녹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양초에 불을 붙이면 점점 녹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녹아 사라지는 것 같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빠져있는 고난의 늪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늪에 빠져나와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인생길은 ‘거룩한 진리의 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안전하게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길

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한 길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들어 천천히 걷기도 하고, 잠시 머물러 휴식을 취할 때도 있겠지만 결코 그 길을 따라 가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달려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길을 따라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의무감을 가지고 따라야 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도록 말씀하신 그 길을 성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담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마르튀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길에 우리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절망과 고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쁨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내 딛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의 비밀이 깊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오직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는 위로 통해 고난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33~48

1.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에 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지금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25절)’, ‘영혼이 놀렸다(28절)’는 표현으로 기록된 시인의 고통을 보면서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이었으며,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야 할 길’, ‘의무감을 가지고 따라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38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40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41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7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시편이라고 하여, 스물 두 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각 8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성에 따라 33~40절은 다섯 번째 알파벳인 ‘헤’, 41~48절은 여섯 번째 알파벳인 ‘바브’가 각 8절의 첫머리에 위치합니다. 시편 119편의 별명이 ‘말씀 시편’임을 생각할 때에 33~48절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33~40)

(33~35)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주변에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공도,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현되며,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시인도 자신 있게 답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3절에서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교훈하고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열리는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그리고 교우님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봄가을로 열리는 교구목사님들의 성경공부강좌, 혹시 얼마나 참여해보셨습니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가슴에 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듣는 분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늘 해야 할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35절에서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 짓고 자 하는 욕구가 앞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겨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보십시오. 이제는 용서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36~39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36~39)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6절의 시작은 ‘내가 돌아서게 하소서’입니다. 탐욕과 욕심만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 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죄 가운데 태어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며 사는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37절의 시작은 ‘지나치게 하소서’입니다. 허탄한 것,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을 지나치게 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허탄한 것은 이상승배일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의 시작은 ‘세우소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지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 번 흐트러진 그의 시선과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결국 시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9절의 시작은 37절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비방을 통

과하게 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비방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열었던 시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할 모습과 말씀순종의 결과(41~48)

41~4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이어져야 할 마땅한 모습들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고백되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42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43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44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킨다는 이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시인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글성경에서도 ‘내가, 내가, 내가’라는 말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힘주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아무 것도 아닌 우리 인생.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요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다보니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능동성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기에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등 떠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면 그제야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45~48)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질 때에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4가지입니다. 45절에서 자유롭게 걷고, 46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고, 47절에서 말씀의 기쁨을 얻고, 48절에서 말씀 앞에 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걷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시선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과 용

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앞에 누가 서 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무엘 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불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만족과 행복이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가끔 찬양을 부르는 중에 손을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3~4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

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를 위해 주신 거룩한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며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하지는 않는 무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삼아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삼아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시편 119:49~64

1.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2가지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인의 삶에 이어지는 고백 3가지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했을 때에 누리는 영적유익 4가지는 무엇입니까?

5.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57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60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49~56절)

오늘 본문 49~56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7번째 알파벳, ‘자인(Zayin)’으로 시작됩니다.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스스로를 ‘주(당신)의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며, ‘주인의 명령, 말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종이기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여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의 대표인 아브라함은 75세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와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100세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평범한 것보다 더 아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그 나이는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때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며,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밧세바 사건도 일으켰고,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망이 되어, 다윗의 왕위는 1000년 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뎛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삶

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는 매주일 예배, 여러 예배, 성경공부 등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가치관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0~51)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이 진창이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 할 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자신을 소생(蘇生)하게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또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조금만 쓰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이 되고, 순종한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를 살리게 됩니

다. 그것을 아는 시인은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인을 보호해주고 소생하게 해 주었듯이,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말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는 ‘예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문학작품들 중에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작품성이 인정을 받게 되어서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최소한 2000년 전에서 3500년이나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후손들에

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맹렬하다’는 말은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면 견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가듯이 그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54~56)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 집을 ‘나그네살이 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에는 고난과 고달픈 일을 많이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 자신도 자신의 인

생길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삶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남게 됩니다.

말씀 지킴의 복(57~64절)

57~64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 ‘헤드(Heth)’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시인이 자신이 결단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57~58)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아무 분깃(유산)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주지는 필요했기에, 도피성 6개를 포함한 48개 성읍만 분

배받았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한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9~60)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행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발이 말씀이 가리키는 길과 다른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속히 돌이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본래 죄를 짓는 삶이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긋난 길에 발을 디뎠더라도 빨리 빼고 다른 길을 가지만, 자기 욕망에 물든 사람은 어긋난 길을 지속적으로 걷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을 주고, 더 즐겁게 해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로 남고, 자신을 즐겁게 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은 마치 갈증이 날 때에 짠물을 마신 것과 같아서 더 큰 갈증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

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1~62)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줄’은 ‘포로됨’이나 ‘덫, 올가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라가 패전하여 포로가 된다는지, 토끼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덫에 걸리거나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의 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짐승이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이 악인들이 꾸민 계략에 빠져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인은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에도 그 음식이 생각나고 또 먹고 싶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반복해서 먹고 싶어집니다. 말씀의 맛에는 선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밤중’에 일어나서도 주님의 의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밤중’은 ‘고난’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모두 잠이 들어 있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밤중’은 쉽게 감사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감사가 더욱 값집니다. 마치 다니엘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

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한 것 역시, ‘인생의 한낮’이 아니라 ‘인생의 밤중’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3~64)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친구’는 ‘결합하다’, ‘단결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떤 교제보다도 말씀을 깊이 나눈 교제가 깊고 풍성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얹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과의 교제는 오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계획하였던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난 중의 위로’, ‘나그네 된 집’, ‘악인들의 줄’과 같은 말들은 시인이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넘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고백했습니다. 좋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살듯이, 시인도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순종시키는 것을 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나그네가 머무는 임시 숙소와 같아도 말씀으로 찬양하고, 악인들이 꾸민 계략의 줄에 얽힌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살았던 때는 완성된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 ‘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아래에 무릎을 꿇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엮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 시인은 밤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친구가 되겠노라 결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사람과 같이 되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시편 119:65~80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76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8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엿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난보다 큰 말씀사랑(65~72절)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65~72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9번째 알파벳, ‘테드(Teth)’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비록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65~66)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49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주(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했었는데, 65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와 더 많은 누림과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들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명철’의 문자적인 뜻은 ‘맛, 미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

님의 말씀의 맛을 가르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4:8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은 다 먹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간이 제대로 되었는지, 맛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한 두 점만 먹어봐도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3~4명분의 국을 끓일 때도 한 두 숟가락, 또는 두 세 숟가락 정도로 맛을 봅니다. 더 나아가 3~40명분의 국을 끓일 때도 동일하고, 심지어 초대형 솥에 3~400명의 국을 끓일 때도 동일하게 두 세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3~40명분의 국을 끓인다고 해서 밥그릇이나 국그릇 가득하게 맛을 보고, 3~40명분의 국을 끓인다고 해서 한 냄비 가득 맛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성경을 한 장을 묵상할 때도, 시편, 잠언과 같이 한 권을 묵상할 때도,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할 때도, 한 두 구절, 두 세 구절이 맛있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과 바로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면, 1장 전체, 1권 전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명철(말씀의 맛)’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은 ‘단순한 앎’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앎’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앎’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3~4살 정도의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앎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아빠나 엄마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인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自家)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모를 것이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아는 것은 아빠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다가 무서운 꿈에서 깨어 올면 어떻게 달래주는지, 자신이 달려가면 어떻게 팔을 벌려 주는 지 압니다. 그것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앎의 지식입니다.

또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해서 한자나 외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남다른 분별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67~68)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함’을 기준으로 시인의 삶이 ‘전에’와 ‘이제’로 나뉩니다. 시인은 ‘전에’는 ‘그릇 행함’이었고,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

하든지, 알고 있음에도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삶을 바꾸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와 함께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난당하다’의 의미가 ‘낮아지게 되다’와 ‘압제를 받다’입니다. 고난이라는 친구는 언제나 지금의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고난의 원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함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율례(눈에 보이는 규칙)’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9~70)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인은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의 법을 지키겠노라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삶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까지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시인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어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몸도 살이 많이 찌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마음은 몸보다 훨씬 예민하고, 예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넘어뜨리려는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71~72)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67절에서 고난을 당하고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한 시인은, 이제는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유익하다’는 ‘선하다, 좋다’는 의미입니다.

30년 정도 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수련회에서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6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갖추고 살고 싶은지 써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서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을 써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20평, 그 다음에는 10평에 살게 되었다면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써 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만약 지진이나 해일(海溢)이 2~3시간 후에 온다고 경보

가 올린다면, 아마 가지고 나갈 것과 두고 갈 것이 아주 또렷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또렷하게 구분하게 해 줍니다. 꼭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고, 덜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될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나뉘게 해 줍니다. 시인은 고난의 시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며, 아주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천 개의 금이나 은보다도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73~80절)

73~80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0번째 알파벳, ‘요드(Yodh)’로 시작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3~74)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비라는 까닭이니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시인은 도예가가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배우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사용설명서’와 같다고 배운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세우셨으니, 자신이라는 작품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명들(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낚시꾼은 낚시꾼을 만나면 기쁩니다. 아마 골프이야기, 낚시이야기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를 것입니다. 또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요리사를 만나 조언을 듣고,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 그 운동선수나 코치를 만나 자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의 말을 들으면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목회자의 삶에서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바뀌어 가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75~77)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판단의 옳음을 인정하고, 비록 지금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어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치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폭력조직의 두목을 아버지로 두었던 아들이,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화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젠 줄 아니?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건달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다. 중학교에 다닐 때에 어머니가 입원했지만, 내가 가출한 뒤 돌아오니까 삼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더라. 그 때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때려주기라도 했으면, 내가 그 때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는데...”

시인은 자신이 바르지 않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며, 혹 어긋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 다음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

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을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8~80)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소망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간순간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언제

나 진리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한 교만한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65~72에서 시인은 ‘좋다, 선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65절에 ‘선대하다’, 66절에 ‘좋은 명철’,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71절에 ‘유익이라’, 72절에 ‘좋으니이다’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73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시인을 만들고,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좃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건데,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고난을 당하기 이전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혹 고난을 당할 때에도 원망이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움으로 고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좃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과는 교제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마르투스(증인)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기 속의 가족부대 같이 되었으나

시편 119:81~96

1. 시인은 고난당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고난당함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특히 말씀을 통해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2. 시인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 시인을 넘어지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기기 쉽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3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85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4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간구(81~88절)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1~88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1번째 알파벳, ‘카프(Kaph)’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시인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81~82)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실 구원을 사모하다가 ‘피곤하다’고 고백합니다. ‘피곤하다’는 단어는 ‘소모하다’, ‘고갈되다’의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하게 소망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이 다 ‘번아웃(burnout)’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오랫동안 극심한 환난으로 고통을 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한계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후에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더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혹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하고 크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주님의 안위(위로)하심이 언제 임하실지를 기다리는데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안위(위로)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눈으로 읽은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안위가 되어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예배와 수요성경공부 등을 드릴 때에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여 모든 상황을 상대화시키기도 하고, 구역성경공부 모임에서 구역 식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깊은 울림과 귀에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의 짧은 여행, 작은 나들이나 산보가 하나님의 안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안위(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3~84)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물이나 우유, 포도주 등을 담아두는 동물가죽으로 만든 부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을 하였는데, 텐트 안에는 음료를 담아 공중에 걸어두는 가죽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 등의 생활을 위해 텐트 안에서 계속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 때에 나는 연기가 빨리빨리 밖으로 빠져나가 못하고, 걸려 있는 가죽 부대를 까맣게 그을려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웠던 가죽이 점점 굳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연기에 그을려진 가죽 부대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또한 유목민들은 포도주를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그 위아다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를 매달아 놓기도 했는데, 그 경우에도 가죽부대는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해서 검게 되고, 주름이 심하게 잡혀서 쓸모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검게 되고 점점 굳어져 가서 버리게 되는

가죽부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85~86)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신을 자신보다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기에, 자기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른 것이라고 증명되면, 자신들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경건히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함정(陷穽)’입니다. 특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복수(複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함정)를 하나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으며, 그것들이 파져 있는 장소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들 앞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들과 강하다고 자신했던 부분들에 넘어지고, 웅덩이(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87~88)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를 지금 표현으로 하면, ‘집단따돌림(이지메, 왕따)’와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눌리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따돌림을 당해, 쫓겨 다닐 때에, 사울왕의 아들이자, 다윗을 잘 돌보아 준, 요나단에게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좃았습니다.

지금 시인도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살려 주시면, 다시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의 간구(89~96절)

89~96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2번째 알파벳, ‘라메드(Lamedh)’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9~9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89절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참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서 있습니다.”로 하면, 이것은 말씀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서 현재와 영원이 다른 개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과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현존합니다.

(92~93)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이 겪은 고난은 ‘멸망(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은 주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의 즐거움’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

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용기와 소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인에게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이 시인에게 언제나 생명이었고, 동행이었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매뉴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1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운동할 때에는 승부욕이 많지 않습니다. 운동에서는 이기지 않아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은 소망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한 친구가 1주일동안 잠언을 다 읽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전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시인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러버(God’s Word Lover)’이었던 것입니다.

(94~95)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틀렸는지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또 이단들의 종류가

적지 않아서 개인이 다 공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면 바르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잘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조지폐를 자주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폐감별사의 손이 진짜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면, 위조지폐는 금방 다르게 느껴집니다.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른 말씀처럼 읽히고 들립니다. 학생일 때 읽는 성경과 직장인일 때 읽는 성경의 의미가 다릅니다. 결혼 전에 읽는 성경과 결혼 후에 읽는 성경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읽는 성경과 외국에서 읽는 성경이 같은 본문이어도 다르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릴 정도로 모함을 받고, 악한 사람들로부

터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간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17~18)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존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좃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삶이 고달프고, 자신의 인생이 연한 가족이 아니라 검게 그을리고 딱딱해져가는 가족부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고, 또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낙망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음이 자신을 살게 해 주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을 붙좃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시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말씀을 사랑함과, 말씀에 순종함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이다

시편 119:97~112

1. 시인은 자신의 모습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2.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이 되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3.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심오함과 넓이의 광활함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끝가지 붙좃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명철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97~104절)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옵니다. 즉 8줄을 한 연으로 하는 22연으로 된 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97~104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 ‘멤(Mem)’으로 시작됩니다. 즉 13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히브리어성경으로 97절은 ‘어찌 그리’라는 단어부터 시작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만을 읽고 읊조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

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작품을 만드는 일도 좋아하게 되면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삶과 행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게 되고, 또 늘 읊조리게 되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말씀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의 선순환이 주는 결과는 아주 큼니다.

(98~100)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읊조림(묵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원수의 지혜보다 낫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시인을 해치기 위해서 ‘옹덩이(함정)’를 파고서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시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유혹과 위협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하기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스승보다 더 낮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읊조림(묵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청출어람(靑出於藍)’입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 어렸을 때에 동네 스포츠센터나 공공시설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때에게 가르치는 강사는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빨리 갈 수 있는지 신기하게 생각되어, ‘혹 강사가 사람이 아니라 인어(人魚)가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수영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 옛 강사를 보면,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세계 정상급의 코치에게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강사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련하는 최고의 스승, 영원한 스승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스승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림(묵상함)이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노인들도 더 명철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노인들(어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관료, 지혜자 등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모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노인들(어른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하며, 읊조렸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1~102)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금하다’는 ‘가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를 외양간에 가둘 때’와 ‘말을 마구간에 가둘 때’, ‘산에서 사로 잡은 산짐승을 우리에게 가둘 때’, 그리고 ‘죄수들을 감옥에 가둘 때’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시인은 그 제어 대상이 짐승이나 죄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말씀을 지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좃으면, 다

른 것을 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104)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말씀의 맛이 최고임을 수사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지만, 당시에 꿀은 당도와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영양이 최고임을 표현하는 것이 ‘꿀’입니다. ‘꿀’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최고, 최상의 음식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 음식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입니다. 과거 광고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이 있었습니다. 아니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미워하고,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사랑합니다.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105~112절)

105~112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 ‘nun(Nun)’으로 시작됩니다. 즉 14연에 해당합니다. 역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燈)’과 ‘빛’으로 표현하는 것의 전제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산길과 같이 가팔랐다면 지팡이나 등산화로 표현했을 것이고, 바다나 강과 같이 물길이었다면, 배나 튜브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생길이 어두움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하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과 같고, ‘빛’과 같다고 합니다. ‘등’은 우리 문화에서는 ‘호롱’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횃불’ 정도입니다. 등의 역할은 발 앞의 몇 걸음 정도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매일 새벽에 듣고 먹는 말씀, 주일에 듣고 먹는 말씀 등이 그러합니다. 등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인생의 널려 있는 크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도 같습니다. 이것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를 뜻합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

저 있어도, 해만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또 밤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북극성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말씀의 역할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끼여 있어도, 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갈 길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106~108)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됨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면, 살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자원제물(낙헌제)입니다. 시인은 어떤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9~110)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다(My life is continually in my hand)’입니다. ‘나의 손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시인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데는, 악한 사람들이 놓은 ‘올무’도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1~112)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하시고 그 땅이 각 가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영원히 사고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 양식이 필요하거나 빛을 저서 땅을 팔았을

지라도 매 50년마다 정한 때에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다음 희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땅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원히(한 평생) 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정하였다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시인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읊조림은 것이 자신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없이는 어두운 인생길을 결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음도 고백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기업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걸음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라고도 고백하십시다. 그리하여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는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늘 읊조림을 통해서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지고, 스승과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본래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덜 총명했고, 미련함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삶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인의 삶을 등불과 빛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함이 없이도,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불과 빛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2. 시인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맛있게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라고 자기 말로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시편 119:113~128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
 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
 서 117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8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
 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0 내 육
 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21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
 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113~120)

오늘 본문은 답관체 시편의 15연과 16연의 내용이며 113~120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싸멕’으로 시작하고, 121~128절은 ‘아
 인’으로 시작합니다. 15연의 첫 글자인 ‘싸멕’은 영어의 알파벳
 ‘O’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사람이 납작 엎드린 형태의 글자입니
 다.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
 리고 굴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6연의 첫 글자인 ‘아인’은 영
 어의 알파벳 소문자 ‘y’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그 의미는 눈으
 로 보고 이해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상징합니
 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영적인 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에 말씀에 굳게 매여 붙들린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박
 해하며 믿음의 길이 곤고하고 고될 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사명이기에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살아갈 길입니다.

(113~115)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인이 분명히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방해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인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갈등중에 있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와 미움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과 세상이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 사이에서 시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갈등하고 고뇌하는 지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의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미움을, 주의 법을 향해서는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위험에서 보호되는 길은 오직 주님 품 외에는 없음을 알고, 피 튀기는 전쟁터 속에서의 은신처요 방패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겠다는 시인의 고백에는 갈등하는 내적마음을 굳건하게 하기위한 전투적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행악자로 표현 함으로 그들과의 노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16~117)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6절과 117절의 핵심구절은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무언가에 붙들리고, 매이는 삶이란 표면적으로는 그리 탐스러워보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고 생각과 행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무가지가 자유를 갈망하여 줄기에서 떨어지면 곧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싫어 벗어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지 않고 동산안에 매여있음이 행복이었습니다. 에덴동산을 벗어난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벗어난 그 삶은 곧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붙들림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호칭에 붙들리고 교사, 구역장, 봉사자라는 이름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영혼에 참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노년의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젊은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에 거하는 것이 복이며,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 손에 붙들림이 복입니다.

(118~120)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사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며 저것도 아닌 상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볍게 여기며,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할지 어떤 기준도 없이 수시로 변하는 내 생각과 가치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 해도 얻을 것이 없는 빈 그물과 같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설픈 순종은 불순종과 매일반입니다. 주님과 그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그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적당히 믿고 있으며, 어설픈 순종하고, 주님을 잊고 살아갔다면, 영적인 각성을 하여 나를 두려움 속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대상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상대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갈 때 예의 있고 친절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121~128)

(121~122)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은 박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당한 정의와 공의의 뜻은 고난의 십자가였듯이 말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다면 좋겠지만, 당장 찾아오는 것은 박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말씀의 사람들은 스스로 약해지고, 넘겨지며 박해를 당하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을 서서히 지워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만 선명해지도록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자신의 욕심을 과감하게 지

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3~126)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인간이기에 느끼는 피곤함이 왜 없겠습니까? 말씀이 진리
임을 알지만 붙들고 가기에 느껴지는 곤고함이 누구인들 없었
습니까? 그 피로감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
달으며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이 뜻을 품으면 좋은 일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 세상의 모든 악인들,
박해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이 폐하려 할 그 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종 된 우리
의 일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127~128)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종으로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
워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했던 내 영적 노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자녀이면 세상으로, 하나
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적당히, 어설피게, 두루뭉술하게 살아왔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모든 거짓과 악행, 본질을 흐리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미워하
고 오직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녀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스스로 매이고, 약해지며, 나를
지워 나갈 때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대단한 삶을 꿈꾸고 누구나 인정할만한 삶을 바래왔던
것은 아니지만, 때론 초라한 내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습관처럼
반복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기가 두려웠고, 신앙과 믿
음을 지켜내기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에 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자녀로 나를 점점 지위가게 하
여 주시고,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
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마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유시간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2.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붙들어 매기 위해 매여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지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4.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의 어떤 부분을 지워나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32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129~144

129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35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137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39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4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시이기도 한 시편 119편은 모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번째 연과 18번째 연으로 17번째 연은 매행의 서두가 히브리어 알파벳 Pe (페)으로, 18번째 연은 매행의 서두가 히브리어 알파벳 Tsadhe(차테) 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129~131절)

(129~131)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119편의 별칭이 ‘말씀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과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인은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다른 단어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증거’, ‘계명’, ‘율례’, ‘법도’, ‘율법’, ‘도’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129절에서도 시인은 ‘증거’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9절에서 시인은 그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미련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어둠과 우둔함을 뚫고 나갈 지혜의 빛은 오직 말씀에서 오기 때문임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즉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접하게 되고 직접 귀로 듣게 되면, 그전에는 말씀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읽을 사람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고 갈급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 우매한 인간이 가지지 못했던 이해력과 분별력,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지혜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의 손에서 주어지는 먹이 한 조각을 기다리며 헐떡거리는 반려견의 입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인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의 기도(132~136절)

이어지는 132~136구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132절), ‘나의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133절),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134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가르치소서’(13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136절)으로 시인은 간구합니다.

각 절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32절의 기도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

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도 관심을 보여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오늘 시인에게 사람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지만(134절),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주님을 신뢰하며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던 예언자,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주소시오’. 이것이 시인의 간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 주소시오’ 라는 간구에는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시오.’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137~144절)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6가지로 노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138,144절)

“(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그분의 절대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못하고 부당하거나 불의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처지에서, 각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에게도 옳고 바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화가 있고, 일치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배경, 철학과는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 의의 길로, 바름과 옳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138절)

“(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본문에서 ‘성실하다’로 표현된 단어에는 신실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극히 신뢰할 만합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서부터 백수를 누리는 노인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140절)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사람의 말에는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설교나 메시지 안에도 순수하지 않은 의도들이 선한 말과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후 4:2) 복음의 메시지에 불순물을 섞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갈1: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12:6)” 흠 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하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시12:6). 아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받아들 수 있을 만큼 순전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142절)

“(142)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세상의 가치와 지식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존중받던 권위도 구조와 체제도 모두 송두리째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수천 년 전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읽고 듣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143절)

“(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있을 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꿀 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는(시119:103) 시인의 고백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해본 자의 고백입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144절)

“(144)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라지
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
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
효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
다.

시인은 지금 박해가운데 있고(134절),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143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141절),
사람들로 부터 공격과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139절), 불법과 부
조리의 상황에서 깊은 슬픔의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136절)
그런데 그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십니
다.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환난과 우환, 공격과
반대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여호와
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도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도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며 진리이시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며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바울의 고백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인은 고난과 박해,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낙심스러
운 상황과 환경, 공격과 박해 속에 살아가던 바울도 이렇게 고
백했습니다.

(고후 4:8~9)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
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육신하
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4:6~7)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인이 그렇게 소리높여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
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
들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

시고 직접 확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빛이 바울에게 비쳤고 이로 인해 바울은 보배를 가졌다고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노래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노래하였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의로우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순전하시며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드린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약속과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히브리서11:39~40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증언합니다.

(히 11:39~40)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11장의 증언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나도 받게 해 주소서' 라는 시인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신 약속, 아직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약속의 완성자,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십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번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십시다. 의롭고 신실한 예수, 순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우리의 즐거움이요, 진리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주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10월을 시작합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예수의 빛을, 순수하고 영원한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비취주시사 기쁨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 살아가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하옵소서. 시인의 노래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과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 성취해가는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131절) 나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 2.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합니까?

- 3.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 4.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145~160

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9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2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53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5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6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8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59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간구(145~152절)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옵니다. 즉 8줄을 한 연으로 하는 22연으로 된 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19번째와 20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145~152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19번째 알파벳, ‘코프(Qoph)’로 시작됩니다. 즉 19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말씀에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5~146)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2절에서 모두 ‘부르짖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부르짖다’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치다’는 의미와 함께 ‘초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이리 와 보세요!” 그 의미는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빠와 엄마를 자신이 있는 자리까지 초대 하는 것,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어렵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심각한 위기가 처했음을 아뢰는 것이자, 자신에게와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전심(全心)’은 ‘모두 전(全)’에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마음’의 원래 의미는 ‘심장(心臟)’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심장이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 정, 의를 다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심장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기 위해서’와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47~148)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뗐나이다

‘날이 밝다’는 ‘바람이 불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기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니다.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이내 기온도 떨어져서 서늘한 바람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불니다. ‘날이 밝다’는 말은 성경에서 ‘저녁’, ‘밤중’, ‘새벽’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48절의 ‘새벽녘’은 오전 ‘2~6시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날이 밝기 전’과 ‘새벽녘’은 모두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도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5~147절까지 반복해서 ‘부르짖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해가 뜨기 전, 한 밤중에 눈을 뜬 것은 다 부르짖기 위함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 때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새벽시간에도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조용히 읊조린다)고 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다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말(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49~150)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단지 ‘듣지 않으심에서 들으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행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의 근거를 2가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규례’를 들고 있습니다. ‘인자하심(헤세드)’은 ‘언약으로 맺은 사랑’이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무리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글로 새긴 것이 ‘주의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생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주의 법에서 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사람들은 악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법에서 먼 것이

뭐가 그렇게 악한 것이냐,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자신에게 가장 큰 죄였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1~152)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인은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왔을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시인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것도 오래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리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회복을 간구(153~160절)

153~160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20번째 알파벳, ‘레쉬(Resh)’로 시작됩니다. 즉 20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자신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53~156)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건지소서’와 ‘살리소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직접 화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잘못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행했기 때문,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고, 바르게 행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또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호해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져올려 주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전권을 쥔 왕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 가려 뽑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미 사울왕의 손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시 18:2)”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견저주심이 자신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라도 곳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7~159)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들’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를 추격하는 사람들’과 ‘나를 가두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지난 삶에 대해서 온갖 뒷조사를 다하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놀림이 굉장할 것이고, 계속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는 말씀을 들으려 해도 소리에 울림이 많아 잘 들리지 않고,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은 아주 크게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을 보고서 슬퍼한다고 합니다. ‘슬퍼하다’는 단어는 ‘몹시 미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함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강령(綱領)’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①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②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

히브리어로도 강령은 ‘머리,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고, ‘총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60절 전반부를 ‘주님의 말씀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의 전체가 진리입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신랑이 올 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담고서 기다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시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발에 등불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말씀을 묵상하기(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단지 시간적으로 해

가 뜨기 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신분에 알맞은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았다면, 영원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깨어 있는 하루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새벽녘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지시키고, 소생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고난을 겪지만,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엮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 새벽녘에도 깨어 있음을 봅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고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우리의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더 높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들어있는 등을 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의 기름을 항상 준비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161~176

1. 시인이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혹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2.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3.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며, 또한 영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경험하신 때가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며, 말씀에 자신의 삶을 엮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꺾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 하나이다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169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3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에 대한 열정(161~168절)

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옵니다. 즉 8줄을 한 연으로 하는 22연으로 된 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마지막 2개인, 21번째와 22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161~168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21번째 알파벳, ‘신/신(Sin/Shin)’로 시작됩니다. 즉 21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은 ‘통치자들, 수령들, 지휘관들’ 등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위해(危害)를 가하며,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짓으로’라는 단어를 보아서 사실이 아닌 일로 시인을 모함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시인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시대, 아합왕과 이세벨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이세벨 왕비가 키우는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만 해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 부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키게 한 나봇의 포도원도 거짓소문을 내어서 죽이고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떤 신이 하나님이신가를 판가름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 편에 서기를 머뭇머뭇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관들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여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십시오.”라며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을 군인들이 취한 전리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선(視線)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을 수 없고, 또 합리화가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고대에는 국가적으로는 국토를 확장하고,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국가에서 녹을 받거나 보급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복무를 했는데, 가장 큰 기쁨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대가로 획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 막히는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전쟁이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전리품과 함께 돌아가는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그 즐거움만큼이나 큰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3~164)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이, 당시에 도 지도자들이 거짓된 내용으로 이익을 탐했고, 종교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곤 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삶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에 증표가 암양 새끼 7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7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항상 찬양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범사에 송축했다”는 의미입니다.

(165~166)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5절의 말씀은 지난 9월16일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일관되게 관통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로막힌 홍해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홍해는,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은혜의 체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것들 역시 장애물이 되지 못했

고,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은혜의 체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체험은 시인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167~168)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지극히 사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끝나는 말씀 지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 집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혀끝에 있지 않고, 손과 발의 끝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인도에 대한 간구(169~176절)

169~176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마지막 22번째 알파벳, ‘타우(Taw)’로 시작됩니다. 즉 22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169~170)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신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 자신이 건짐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속으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자학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틴어, 코람 데오_Coram Deo)”는 종교개

혁자들의 삶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_코람 데오’의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171~172)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2절에는 모두 중간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례를 제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와 “제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갖게 되었을 때나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칠 때입니다. 그 때에 찬송가 285장 1절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 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173)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도 앞 뒤 순서를 바꾸어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 집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주실 것이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세속적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립니다.

(174~17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앓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이 살아서 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으니,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

본문에서 시인은 고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전리품을 보며 기뻐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주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9편을 지난 11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접붙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부 엮을 수 있는지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깨어 있는 신앙과 깨어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전리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큰 평안과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손에 움켜 쥔 것이 많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군데군데 놓여 있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살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중이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읽고, 가슴으로도 읽고, 손과 발로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며,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과 매일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